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정답과 해설

1 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본문 9~10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1) 완강기 사용법 (2) 복합 양식성
02 ㉠, ㉡

01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1) (가)는 라디오 방송으로 소방관이 출연하여 완강기를 소개한 후, 화재 발생 시 완강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인쇄물로 그림과 문자를 사용하여 완강기 사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QR 코드를 사용하여 완강기 사용법과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나)에서는 문자와 그림을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QR 코드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매체에서 소리(음향), 음성, 이미지(그림, 사진 등), 문자,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한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텔레비전은 라디오와 달리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등을 매체 언어로 더 활용할 수 있다. 완강기 사용법을 소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완강기의 구성품들을 실물 사진으로 보여 주면서 설명하고, 자막으로 명칭을 추가로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출연자가 완강기 사용법에 따라 직접 완강기를 통해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 줄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정보는 완강기 사용법이다. 완강기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것은 (가)의 제작 의도와 거리가 멀다.
㉡ 소화 장비들의 사용법은 (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내용은 (가)의 제작 의도와 거리가 멀다.

2 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

본문 14~15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최소 대립쌍	추출된 음운
	거르다-고르다	ㄱ, ㄴ
	구슬-구실	ㅡ, ㅣ
	나리-누리	ㄷ, ㅌ
	매다-메다	ㅁ, ㅂ

- 02 (1) 입술을 평평하게 한다
(2) 혀가 뒤쪽에 있다
(3) 혀의 높이가 낮다

03	탐구 대상	음운 개수 변화	음절 유형 변화
	부역문[부영문]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착하니[차카니]	1개 줄어듦.	'착하니'의 '착'이 ㉠에서 ㉡로 변함.
	집일[짐닐]	1개 늘어남.	'집일'의 '일'이 ㉠에서 ㉡로 변함.

01 최소 대립쌍

〈보기〉에 의하면 '최소 대립쌍'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고, 이를 통해 음운을 추출할 수 있다. 즉 최소 대립쌍 중 뜻이 구별되게 하는 소리가 음운에 해당한다. 제시된 언어 자료에서 예를 들자면, '거르다'와 '고르다'는 'ㄱ'와 'ㄴ'으로 인해 다른 말이 되므로, '거르다'와 '고르다'는 최소 대립쌍이고, 이를 통해 'ㄱ'과 'ㄴ'을 음운으로 추출할 수 있다.

02 국어의 모음 체계

- (1) 'ㄱ'과 'ㄴ'은 둘 다 후설 모음이고 중모음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는 평순 모음, 후자는 원순 모음이다.
(2) 'ㅡ'와 'ㅣ'는 둘 다 평순 모음이고 고모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후설 모음, 후자는 전설 모음이다.
(3) 'ㅁ'과 'ㅂ'은 둘 다 전설 모음이고 평순 모음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전자는 저모음, 후자는 중모음이다.

03 음절 유형과 음운의 변동

‘부엌문’의 ‘엷’에서 ‘ㄱ’은 ‘ㄱ’으로 교체된 후 다시 ‘ㅇ’으로 교체된다. 그러므로 음운 개수의 변화나 음절 유형의 변화가 없다.

‘착하니’는 ‘착’의 ‘ㄱ’과 ‘하’의 ‘ㅎ’이 축약되어 음운이 1개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착하고’의 첫 번째 음절 ‘착[착]’이 [차]로 바뀌어 ㉔에서 ㉕로 음절 유형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집일’은 ‘일’에 ‘ㄴ’이 첨가되고 ‘집’의 ‘ㅂ’이 ‘ㅁ’으로 교체되어 음운이 1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집일’의 두 번째 음절 ‘일[일]’이 [닐]로 바뀌어 ㉔에서 ㉖로 음절 유형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보기>의 설명은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을 크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초성과 종성에 자음이 오는가, 종성에 어떤 모음이 오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㉔ 단어

본문 22~23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단어	형태	기능	의미
주말	불변어	체언	명사
셋	불변어	체언	수사
에서	불변어	관계언	조사
우리	불변어	체언	대명사
새	불변어	수식언	관형사
맑은	가변어	용언	형용사
한결	불변어	수식언	부사
아	불변어	독립언	감탄사
떠들다	가변어	용언	동사

02

	해당 단어	결합 형태
㉑	‘달려왔다’ → 달려오다	어근 ‘달리-’와 어근 ‘오-’가 결합
㉒	‘새파란’ → 새파랗다	어근 ‘파랗-’에 접두사 ‘새-’가 결합
㉓	‘자랑스럽게’ → 자랑스럽다	어근 ‘자랑’에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

03

단어	바른 표기
집현전	Jiphyeonjeon
월요일	woryoil
합덕	Hapdeok

01 품사의 분류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태에 의해서는 불변어와 가변어로 분류할 수 있고, 기능에 의해서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미에 의해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02 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달려오다’는 두 개의 어근 ‘달리-’와 ‘오-’가 연결 어미 ‘-어’의 매개로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새파랗다’는 어근 ‘파랗-’에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자랑스럽다’는 어근 ‘자랑’에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03 로마자 표기법

‘집현전[지편전]’은 ‘ㅂ’과 ‘ㅎ’이 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 나지만, 체언에서 ‘ㅂ’ 뒤에 ‘ㅎ’이 따르는 경우이므로 ‘ㅎ’을 밝혀 ‘Jiphyeonjeon’과 같이 적어야 한다.

‘ㄹ’은 모음 앞에서 ‘r’로 적어야 하므로 ‘월요일[워료일]’은 ‘woryoil’로 표기한다.

‘ㅂ’은 자음 앞에서는 ‘p’로, ‘ㄷ’은 모음 앞에서는 ‘d’로 적어야 하고,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합덕[합떡]’은 ‘Hapdeok’이 바른 표기이다.

③ 문장

본문 30~31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안겨 있는 절의 종류	절이 실현된 표지
(가)	관형사절 '여행을 좋아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사절 '어디로든 떠나기'	명사형 어미 '-기'
(나)	관형사절 '어제 내가 만난'	관형사형 어미 '-ㄴ'
	서술절 '키가 정말 컸다'	표지 없음.
(다)	관형사절 '잔뜩 겁을 먹은'	관형사형 어미 '-은'
	부사절 '손에 땀이 나도록'	부사형 어미 '-도록'

02 (1) 관형어 (2) 부사어 (3) 목적어

03	실현된 부분	문법 요소의 실현 방법
높임 표현	버려집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ㅂ니다' 사용
	주시기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사-' 결합
	바랍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ㅂ니다' 사용
피동 표현	버려집니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
	낭비되지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되다'가 명사에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 사용
사동 표현	남긴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사동사 사용
부정 표현	낭비되지 않도록	'-지 않다' 사용

01 문장의 짜임

(가)에는 관형사절 '여행을 좋아하는'과, 명사절 '어디로든 떠나기'가 안겨 있다.

(나)에는 관형사절 '어제 내가 만난'과, 서술절 '키가 정말 컸다'가 안겨 있다.

(다)에는 관형사절 '잔뜩 겁을 먹은'과, 부사절 '손에 땀이 나도록'이 안겨 있다.

02 문장의 짜임

(1) ㉠에는 '내가 좋아하는'과 '그가 좋아하는', ㉡에는 '새로 사귄', ㉢에는 '동생이 쓰던', ㉣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다.

(2) ㉤은 서술절 '마음이 정말 착하다'에 부사어 '정말'이, ㉥은 관형사절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에 부사어 '초등학교 시절'에가 있다. ㉤의 서술절에서 '착하다'와 ㉥의 관형사절에서 '놀던'은 서술어이다.

(3) ㉦은 앞의 절과 뒤의 절이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관형사절 '내가 좋아하는'과 '그가 좋아하는'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친구도'가 생략되어 있다. ㉧은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관형사절 '동생이 쓰던'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모자를'이 생략되어 있다.

03 문법 요소

제시된 문장에서 높임 표현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주시기'에 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버려집니다'와 '바랍니다'에서는 상대 높임 종결 어미 '-ㅂ니다'이다. 피동 표현은 '버려집니다'에서 어간('버리-')에 '-어지다'가 결합한 통사적 피동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낭비되지'는 명사 '낭비'에, 피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파생 접미사 '-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 '낭비되다'의 활용형이다. 사동 표현은 '남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주동사 어근('남-')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형태이다. 부정 표현은 '낭비되지 않도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지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이다.

④ 담화/국어사

본문 37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 박물관 ㉡: 해수욕장 ㉢: 놀이동산

02 ㉠: 반치음(Δ) 소실
 ㉡: 둘째 음절 '·'가 'ㅡ'로 변화
 ㉢: 첫째 음절 '·'가 'ㅏ'로 변화

03 ㉠: -뇨 ㉡: -ㄴ다

01 담화의 특성

㉠: '학생 1'이 '박물관에 가는 건 어때?'라고 묻자 '학생 2'는 '음, 거기 말고'라고 답한다. '학생 2'의 발화에서 '거기'는 '박물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㉔, ㉕: '학생 2'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진을 보여 주며 '여기는 어때?'라고 묻고, 이에 '학생 1'은 '거기?'라고 되묻는다. 두 발화에서 '여기'나 '거기'는 '학생 1'이 '해수욕장은 아직 좀 춥잖아.'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해수욕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㉖: '학생 1'이 '작년에 같이 갔던 놀이동산은 어때?'라고 묻자 '학생 2'는 '그래, 거기가 좋겠다.'라고 답한다. '학생 2'의 발화에서 '거기'는 '놀이동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02 국어의 변천

㉑: 'ㅁ슴'에서 'ㅁ음'으로의 변화를 통해 반치음(△)이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㉒: 'ㅁ슴'에서 'ㅁ음'으로의 변화를 통해 둘째 음절에 쓰인 'ㅁ'가 'ㅁ'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㉓: 'ㅁ슴'에서 'ㅁ음'으로의 변화를 통해 첫째 음절에 쓰인 'ㅁ'가 'ㅁ'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시대에 따른 국어 자료 탐구

㉑: '엇디'라는 의문 부사를 포함한 설명 의문문에 종결 어미 '-뇨'가 사용되었다.

㉒: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주어가 이인칭인 의문문에 종결 어미 '-니다'가 사용되었다.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RED EDITION

실전 연습이 불안한 수험생이라면!
단 한 번의 수능을 위한
2회분 모의고사 긴급 처방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본문 42~45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㉑: 신뢰성 ㉒: 현장감
02 ㉓: 심미적
03 ㉔: 존중 ㉕: 배려
04 간접 광고에는 기업과 프로그램 제작사의 지나친 상업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01 매체의 특성에 따른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의 이해

㉑: '학생 1'은 '학생 2'가 인터넷 블로그에서 가져온 영상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자, 영상의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㉒: '학생 2'는 인터넷 블로그에는 문자와 사진뿐만 아니라, 음성과 음향, 그리고 영상까지 있어 태풍의 발생 과정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동영상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대해 현장감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 이해

'나도이제벚꽃'은 소설로 제시된 장면이 영상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것에 대해 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 음악, 카메라 움직임과 각도 등의 영상 매체 언어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으며 감동하고 있다. 이로 보아, '나도이제벚꽃'은 영상 매체 언어를 활용한 영화에서 심미적 가치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해

'수영'은 '인수'가 만든 유시시(UCC)의 내레이션이 반말에다가 비속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4 매체 형성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

'은주'는 간접 광고가 상당히 교묘해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업과 프로그램 제작사의 지나친 상업적 목적 때문에 간접 광고가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은주'가 간접 광고에 기업과 프로그램 제작사의 지나친 상업성이 내재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본문 47~49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01 ㉠, ㉡, ㉢, ㉣

02 (1) 동영상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에 비해 용량이 작아 SNS로 공유하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2) ㉠

01 매체 언어생활의 유의점

누리 소통망[SNS]은 주로 비대면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언어 예절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 대화 상황과 마찬가지로 태도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고(㉠), 누리 소통망의 확산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이 아닌 내용은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매체 언어생활도 국어 생활의 일환인 만큼 언어 규범을 잘 지켜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글을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올리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02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1)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처음에는 동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편집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카드 뉴스로 정하였다. 카드 뉴스는 이미지와 짧은 글을 활용하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한눈에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 뉴스는 동영상에 비해 용량이 작아서 SNS로 공유하기도 좋다고 하였다.

(2) 도치법을 사용하여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문구는 ㉠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도치법을 사용하였지만,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 언어폭력이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만, 도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어휘력이 수능 합격을 좌우한다!
수능 필수 적중 어휘만 선별 수록한
40일 단기 완성 VOCA

언어 01

음운 ①

본문 52~5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1 분절 음운

답 ⑥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사과’는 모음으로 발음이 끝나기 때문에 조음 과정의 마지막 막에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 반면 ‘연꽃’은 자음으로 발음이 끝나기 때문에 조음 과정의 마지막에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연꽃’의 ‘ㄱ’은 자음이므로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사과’는 5개의 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꽃’은 6개의 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사과’의 ‘과’는 반모음 ‘w’가 단모음 ‘ㅏ’와 결합한 것이고, ‘연꽃’의 ‘ㄱ’은 반모음 ‘j’가 단모음 ‘ㄷ’와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사과’의 ‘사’와 ‘과’는 자음이므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조음 과정에서 방해받는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02 음절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삶과’는 [삼:과]로 발음된다. 이때 ‘삶’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삼:]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 구조 제약 때문에 종성에 자음이 2개 오는 음절 유형은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자’를 발음할 때 ‘녀(女)’의 ‘ㄴ’이 탈락하는 것은 음절 종성에서 자음이 1개에서 0개로 바뀌는 변화이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 ② ‘노인’을 발음할 때 ‘로(老)’의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은 음절의 개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 ③ ‘닭과’를 발음할 때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닥꽂]로 발음되는데,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것은 음절의 개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음절 구조 제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⑤ ‘깎다’를 발음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깎따]로 발음되는데, ‘ㄱ’이 ‘ㄲ’으로 교체되는 것은 음절의 개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음절 구조 제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03 국어의 자음 체계, 모음 체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서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자음은 파열음이고,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에 놓이고 입술이 둥글게 모아지는 모음은 ‘ㄱ’과 ‘ㄴ’이다. 파열음과 ‘ㄱ, ㄴ’의 조합을 보이는 것은 ‘구’, ‘두’, ‘코’이다. (나)에서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자음은 비음이고, 혀의 최고점이 입 뒤쪽 높은 지점에 위치하는 모음은 ‘ㅡ’와 ‘ㅜ’이다. 비음과 ‘ㅡ, ㅜ’의 조합을 보이는 것은 ‘누’와 ‘무’이다. 따라서 (가)와 (나)를 각각 충족하는 음절끼리 짝지어진 것은 ‘두’와 ‘무’이다.

04 비분절 음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의 ㉠에서 발음 실태 조사 결과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잃어 가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식[소식]’을 [소:식]으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에서 소리의 길고 짧은 차이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보기>의 ㉢에서 장단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현대 국어의 유일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보기>의 ㉣에서 현대 국어의 특정 지역 방언에서는 장단이 비분절 음운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보기>의 ㉤에서 국어의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실현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5 최소 대립쌍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소리’와 ‘오리’는 단어를 구성하는 음운의 개수가 같지 않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소리’는 4개의 음운 ‘ㅅ, ㄴ, ㄹ, ㅣ’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리’는 3개의

음운 ‘ㄱ, ㄴ, ㄷ’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과 ‘곰’은 중성에 오는 ‘ㅇ’과 ‘ㅁ’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 ② ‘산’과 ‘선’은 중성에 오는 ‘ㅏ’와 ‘ㅑ’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 ③ ‘고을’과 ‘노을’은 단어의 첫음절의 초성에 오는 ‘ㄱ’과 ‘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 ④ ‘머리’와 ‘허리’는 단어의 첫음절의 초성에 오는 ‘ㅁ’과 ‘ㅎ’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의 예에 해당한다.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굳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지]로 발음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앞 형태소의 끝소리가 그대로 연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식당에서[식땅에서]’의 ‘당’의 ‘ㅇ’은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 가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남은’은 [나믄]으로 발음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첫아이’는 [처다이]로 발음되므로 연음 전에 ‘첫’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되어 [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높이어’는 ‘높-(용언의 어간) + -이-(접미사) + -어(연결어미)’로 분석되며, [노피어/노피여]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연음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언어 02	음운 ②	분문 56~59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1 음운의 발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달히다’는 ‘달히다 → 다티다 → [다치다]’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된 후 ‘ㅌ’이 ‘ㅣ’ 앞에서 ‘ㅊ’으로 교체되므로 교체가 일어난 후 음운의 축약이 이루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ㄴ’ 첨가로 음운의 개수가 1개 늘어나고,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 ㉢에서는 거센소리되기로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1개씩 줄어들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고, ㉢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첨가가 일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고, ㉡에서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므로 음운의 탈락이 일어난다는 진술 또한 적절하다.
- ④ ㉡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용언의 어간이 ‘ㄴ’이나 ‘ㅁ’으로 끝날 때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ㅎ’ 탈락은 ‘ㅎ’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이다. ‘끓는’에서 ‘ㅎ’이 탈락하는 현상은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기에 이 현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뉘]으로 발음되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② ‘사니’는 ‘살-+ -니’에서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④ ‘서서’는 ‘서-+ -어서’에서 동일 모음 ‘ㅣ’가 탈락한 것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⑤ ‘모아라’는 ‘모으- + -아라’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라)에서 ‘버드나무’는 합성어, ‘하느님’은 파생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고 ‘ㄹ’이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물놀이’는 후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고, ‘권력’은 선행하는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 ② (나)의 ‘않는’과 ‘훑는’에서 자음군 단순화로 ‘ㄹ’과 ‘ㄴ’ 사이에서 ‘ㅎ’, ‘ㅌ’이 탈락한 후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③ (다)에서는 ‘우는’과 ‘아니’에서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용언의 어간 끝소리인 ‘ㄹ’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⑤ (마)에서는 ‘공권력’과 ‘입원료’를 발음할 때 유음화가 아니라 ‘ㄹ’이 ‘ㄴ’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ㄹ’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바꾸어’가 ‘바뀌’로, ‘보아서’가 ‘봐서’로 바뀌는 현상은 단모음 ‘ㄱ’과 ‘ㄴ’이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자음과 단모음 ‘ㄱ/ㄴ’ 사이에 반모음 ‘w’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탐구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살피어’에서 ‘피’의 ‘ㅣ’가 반모음 ‘j’로, ‘이기어라’에서 ‘기’의 ‘ㅣ’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저’, ‘찌’, ‘쳐’가 각각 [저], [찌], [쳐]로 발음되며 반모음 ‘j’가 발음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되어’가 [되여]로, ‘피어’가 [피여]로 발음되기도 하므로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 ‘j’가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시계’를 [시계]로, ‘혜택’을 [혜:택]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계’와 ‘혜’에서 반모음 ‘j’를 발음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서 ‘꽃 한’은 ‘꽃 한 → 꼰 한 → [꼬탄]’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고, ‘술하다’는 ‘술하다 → 순하다 → [수타다]’의 과정을 거쳐 발음된다. ‘ㅎ’이 축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농고’와 ‘중던’은 ‘ㅎ’의 뒤에 오는 ‘ㄱ, ㄷ’이 ‘ㅎ’과 축약되어 [ㅋ], [ㅌ]으로 발음되는 모습을 보이고, ‘넓히다’와 ‘얕히다’는 ‘ㅂ, ㅅ’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ㅍ], [ㅊ]으로 발음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적절하다.
- ③ ‘놓는’은 ‘놓는 → 논는 → [논는]’, ‘쌍네’는 ‘쌍네 → [싼네]’와 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되어 ‘ㅎ’이 [ㄴ]으로 발음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적절하다.
- ④ ‘맑소’와 ‘낱습니다’에서 ‘ㅎ’ 뒤에 ‘ㅅ’이 놓일 때에는 ‘ㅎ’이 발음되지 않고 ‘ㅅ’ 대신 ‘ㅆ’이 발음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적절하다.
- ⑤ ‘쌍이다’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놓였고, ‘닭아’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놓였는데 둘 다 ‘ㅎ’이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뚫다’는 ‘ㅎ’과 ‘ㄷ’이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되므로 탈락은 일어나지 않고 축약만이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탈락이 일어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옳네’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ㄹ’이 탈락하고 ‘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ㅂ’으로 교체된 후 다시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되어 [ㅁ]으로 교체되는 변동을 겪는다. 따라서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색연필’은 ‘ㄴ’ 첨가가 일어난 후 비음화가 일어나 [생년필]로 발음된다. 따라서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④ ‘따뜻하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 ‘ㅎ’과 축약되어 [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⑤ ‘급행열차’는 ‘ㅂ’과 ‘ㅎ’이 축약되어 [ㅍ]으로 발음되고 ‘ㅇ’과 ‘ㄱ’ 사이에 ‘ㄴ’이 첨가되어 [널차]로 발음된다. 따라서 축약과 첨가가 일어나는 사례에 해당한다.

언어 03

단어 ①

본문 60~63쪽

01 ①

02 ①

03 ②

04 ⑤

05 ④

06 ②

01 품사의 특성 - 용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돕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도와’가 된다. 이로 보아 ‘돕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말음인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 ‘w’로 변하는 ‘ㄷ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그리고 ‘흐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와 결합하면 ‘흘러서’가 된다. 이로 보아 ‘흐르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끝음절 ‘르’가 ‘ㄹㄹ’로 변하는 ‘ㄹ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ㄷ 불규칙 용언’이나 ‘ㄹ 불규칙 용언’은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용언이다. 한편 ‘벗다’나 ‘잡다’는 어간에 자음이나 모음 중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더라도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둘 다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제시어]를 통해 ‘이르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와 결합할 때 ‘이르러서’가 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이르다’는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ㄹ 불규칙 용언’이다. 또한 ‘일하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일하여’가 된다. 이로 보아 ‘일하다’는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여 불규칙 용언’이다.

02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논밭’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그러나 ‘보슬비’는 비자립적 어근 ‘보슬’과 명사 ‘비’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짧은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짧은’과 명사 ‘이’로, ‘건널목’은 용언의 관형사형 ‘건널’과 명사 ‘목’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③ ‘들어간다’는 용언의 연결형 ‘들어’와 용언 어간 ‘가-’로,

‘찾아보다’는 용언의 연결형 ‘찾아’와 용언 어간 ‘보-’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④ ‘꺾쇠’는 용언 어간 ‘꺾-’과 명사 ‘쇠’로, ‘덮밥’은 용언 어간 ‘덮-’과 명사 ‘밥’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⑤ ‘뽕주리다’는 용언 어간 ‘뽕-’과 용언 어간 ‘주리-’로, ‘뛰놀다’는 용언 어간 ‘뛰-’와 용언 어간 ‘놀-’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03 품사의 특성 - 용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되묻다’에서 ‘되-’는 접두사로, ‘되묻다’가 두 개의 동사를 어미의 결합 없이 연결하여 만들어진 합성 용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들고 가다’는 ‘들다’와 ‘가다’라는 동사를 어미 ‘-고’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③ ‘걸어가다’는 ‘걷다’와 ‘가다’라는 동사를 어미 ‘-어’로 연결한 말로, 합성 용언이다.

④ ‘출지 않다’는 ‘출다’와 ‘않다’라는 형용사를 어미 ‘-지’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⑤ ‘가 보다’는 ‘가다’와 ‘보다’라는 동사를 어미 ‘-아’로 연결한 말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구이다.

04 품사의 특성 - 관계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기우로밖에’에서 ‘로밖에’는 부사격 조사 ‘로’와 보조사 ‘밖에’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부사격 조사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것만이’에서 ‘만이’는 보조사 ‘만’과 보격 조사 ‘이’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② ‘오빠에게도’에서 ‘에게도’는 부사격 조사 ‘에게’와 보조사 ‘도’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③ ‘뽕만으로는’에서 ‘만으로는’은 보조사 ‘만’, 부사격 조사 ‘으로’, 보조사 ‘는’이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④ ‘해외로의’에서 ‘로의’는 부사격 조사 ‘로’와 관형격 조사 ‘의’가 연속해 쓰인 예에 해당한다.

05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짓밟히고’는 ‘짓-+밟-+-히-+-고’로 분석되고, ‘휘날리는’은 ‘휘-+날-+-리-+-는’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짓-’, ‘휘-’는 접두사, ‘-히-’, ‘-리-’는 접미사이다. 두 단어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짓밟히고’, ‘휘날리는’은 동사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휘날리는’에는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짓밟히고’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짓-’, ‘-히-’, ‘휘-’, ‘-리-’는 접사이지만, 품사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접사가 아니다.
 ⑤ ‘짓밟히고’, ‘휘날리는’은 동사로, 다른 단어의 수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06 한글 맞춤법의 주요 내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실천토록’이 옳은 표기이다. ‘실천하도록’의 ‘하’ 앞에는 받침의 소리는 [ㄴ]으로 [ㄱ], [ㄷ], [ㅂ]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간의 끝음절 ‘하’에서 ‘ㅎ’만 남고, 그 ‘ㅎ’과 뒤에 오는 말의 첫소리가 합쳐져 거센소리로 바뀐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생각컨대’는 잘못된 표기이고, ‘생각건대’가 옳은 표기이다. ‘생각하건대’에서 ‘하’ 앞에는 받침의 소리가 [ㄱ]이기 때문에 어간의 끝음절 ‘하’가 통째로 줄어야 한다.
 ③ ‘어떠타’는 잘못된 표기이고, ‘어떻다’가 옳은 표기이다. 준말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전통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쓰이기 때문에 ‘ㅎ’을 받침으로 적은 ‘어떻다’로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다’는 형용사이다.
 ④ ‘아뿡든’은 잘못된 표기이고, ‘아무튼’이 옳은 표기이다. ‘아무튼’은 어원을 따져 볼 때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아무튼’은 부사이다. 부사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뿡든’이 아닌 ‘아무튼’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그렇든’이 옳은 표기이다. 그러나 ‘그렇든’이 부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용언의 활용형 ‘그렇든’이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든’으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표기해야 한다.

언어 04

단어 ②

본문 64~67쪽

-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① 06 ②

01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푯고추볶음’은 ‘푯-+고추+볶-+-음’의 구조를 가진 말로, ‘접사+어근+어근+접사’로 분석되는 단어에 해당한다. 층위적 분석에 따르면, 이 단어는 ‘푯고추’와 ‘볶음’으로 분석되고, ‘푯고추’는 다시 접사 ‘푯-’과 어근 ‘고추’로 분석된다. 한편 ‘볶음’은 어근 ‘볶-’과 접사 ‘-음’으로 다시 분석된다. 즉 ‘푯고추볶음’은 [[푯-+고추]+[볶-+-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들이옷’은 ‘어근+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② ‘미달이문’은 ‘어근+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③ ‘살얼음판’은 ‘접사+어근+접사+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④ ‘닭고기뿔밥’은 ‘어근+어근+어근+어근’으로 분석되는 단어이다.

02 품사의 분류 기준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웬 까닭인지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에서 ‘웬’은 ‘어찌 된.’이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다른’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 세계의 학자가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에서 ‘전’은 ‘모든 또는 전체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관형사이고, ‘온갖’은 ‘이런 저런 여러 가지의.’라는 뜻을 가진 말로 역시 관형사이다.
 ② ‘그 사람이 나가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다.’에서 ‘그’는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 관형사이고, ‘두’는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말.’로 역시 관형사이다.

④ ‘그는 빗바랜 모자를 버리고 새 모자를 썼다.’에서 ‘빗바랜’은 ‘납거나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진 ‘빗바래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고, ‘새’는 ‘사용하거나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이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다.

⑤ ‘당시 온 식구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에서 ‘온’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같은’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라는 뜻을 가진 ‘같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03 형태소의 종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맨손’은 ‘맨-+손’, ‘살다’는 ‘살-+다’, ‘여닫이’는 ‘열-+닫-+이’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맨-’, ‘-다’, ‘-이’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가 포함된 단어는 ‘맨손’, ‘살다’, ‘여닫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집밥’은 ‘집+밥’으로 분석되는데, ‘집’과 ‘밥’ 모두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한편 ‘접칼’은 ‘접-+칼’로 분석되는데, ‘접-’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 ‘칼’은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다.

04 품사의 특성 - 관계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ㄱ, ㄴ, ㄷ, ㄹ은 모두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ㄷ, ㄹ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고, ㄴ은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ㄱ, ㄷ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하지만 ㄴ은 보조사이지만 ‘차’가 ‘커피’와 대조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ㄷ, ‘빵과 쿠키가 있는데’나 ‘개가 늑대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에서 ‘가’는 모두 주격 조사로, 문장에서 앞말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인 말이다. ㄱ가 문장에서 ‘개’가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인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ㄴ가 문장에서 ‘쿠키’가 보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품사의 분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나는 옷에 흙이 묻어 씻었다.’와 ‘그것은 비밀로 묻어 두었다.’에 쓰인 ‘묻다’는 모두 동사이다. 품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품사의 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형의 진짜 속셈이 뭔지 모르겠다.’의 ‘진짜’는 명사이고, ‘이 책은 진짜 지루하다.’의 ‘진짜’는 부사이다.

③ ‘그는 네게 좋은 친구이다.’의 ‘그’는 대명사이고, ‘그 이야기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의 ‘그’는 관형사이다.

④ ‘여덟에 둘을 더하면 열이 된다.’의 ‘열’은 수사이고, ‘모인 사람은 모두 열 명이다.’의 ‘열’은 관형사이다.

⑤ ‘내일은 출근하는 날입니다.’의 ‘내일’은 명사이고, ‘우리는 내일 다시 모이기로 했다.’의 ‘내일’은 부사이다.

06 합성어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어느새’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이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산들바람’은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에 의미상 종속되는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그리고 ‘눈비’는 단어 형성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단어이며, 앞의 성분과 뒤의 성분이 의미상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단어이다.

언어 05

문장 1

본문 68~7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선생님, 저 지금 집에 가도 돼요?’에서 ‘선생님’은 단어인 ‘선생님’이 별도의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독립어로 기능하는 것이다. ㉠의 주어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지금’은 부사로 단어이며, ‘가도’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무슨 책’은 ‘책’을 꾸며 주는 말인 ‘무슨’이 ‘책’ 앞에 와서 구로 확장된 것이다. ‘무슨 책’은 조사와의 결합 없이 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④ ‘요즘 읽는’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절이며, ‘책’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소설이야’는 명사 ‘소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소설이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듣고 있어 봐’는 본용언 ‘듣다’와 보조 용언 ‘있다’, ‘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서술어이다.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에, ‘보다’는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망가졌네’는 동사 ‘망가지다’의 어간 ‘망가지-’에 어미 ‘-었-’, ‘-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② ‘아름다웠다’는 형용사 ‘아름답다’의 어간 ‘아름답-’에 어미 ‘-었-’, ‘-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③ ‘걱정이다’는 명사 ‘걱정’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졌다.
- ④ ‘먹지 않았다’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않다’가 어미 ‘-지’에 의해 매개된 형태로, 하나의 서술어이다.

03 문장 성분별 특성 - 부사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크게’는 ‘손상된’을, ‘오늘’은 ‘발표된’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둘 다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말’은 ‘진품이라면’, ‘거의’는 ‘보존하고 있습니다’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② ‘아주’는 ‘오랜’을, ‘참’은 ‘잘’을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④ ‘만약’은 ‘이 항아리가 정말 진품이라면’, ‘불행히도’는 ‘이것이 참 잘 만들어진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고’를 꾸며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⑤ ‘땀’은 ‘빛깔’과 ‘형태’를 접속해 주고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04 문장 차원의 오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녀는 나를 정말로 사랑해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내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는 ‘정말로 사랑해 준’, ‘동시에 내게 상처를 주기도’ 등에서 보듯이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음악이나 영화를 보는 것’에서 ‘음악’에 대응하는 서술어 ‘듣거나’ 따위가 빠진 문장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별일 없을 때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이 내 취미야.’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 ② ‘내가 종업원에게 주문하고 나자’에서 ‘주문하고’의 목적어 ‘커피를’ 따위가 빠진 문장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내가 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나자 그녀가 자기 소개를 했다.’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 ③ 주어인 ‘내가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과 서술어 ‘미루지 말자’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내가 후배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것이다.’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 ⑤ ‘그’ 뒤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 ‘그의’가 ‘접시’를 꾸며 주는 관형어가 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아내는 남편에게 고기도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그의 접시에 고기를 더 담아 주었다.’ 따위로 수정할 수 있다.

05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주는’은 타동사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나 ‘마당에서’는 ‘주는’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당에서’를 제거해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는’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는 ‘마당에서’가 아니라 ‘개에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반짝이네’는 자동사로,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인 ‘굉장히’는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밝았다’는 형용사로,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인 ‘초저녁부터’와 ‘휘영청’은 모두 필수적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아니고’는 형용사로,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보어인 ‘2번이’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⑤ ‘삼을’은 타동사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 ‘전화위복의 계기로’를 제거하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다.

06 문장 성분별 특성 - 서술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아이가 다섯 살이 되었다.’에서 ‘되었다’와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었다.’에서 ‘되고’는 모두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문맥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계가 열두 시에 멈추다.’에서 ‘멈추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그는 기계를 잠시 멈추었다.’에서 ‘멈추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③ ‘조직이 은밀히 움직이고 있다.’에서 ‘움직이고’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노인은 상반신을 움직여 겨우 일어났다.’에서 ‘움직여’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④ ‘할머니의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었다.’에서 ‘휘었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소년은 우산살을 휘어 고리를 만들었다.’에서 ‘휘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⑤ ‘정책 실수로 기업의 재정이 크게 다쳤다.’에서 ‘다쳤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나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에서 ‘다쳤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어휘로 판가를 나는 수능 등급
지문·발문·선지의 어휘 총망라 수록!

언어 06

문장 2

본문 72~75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1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철수는 어제 영수와 서로 싸웠다.’는 주어가 ‘철수는’, 서술어가 ‘싸웠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싸우다’의 경우 ‘와/과’가 결합한 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때 ‘와/과’는 상대적으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 아기가 이제야 잔다.’는 주어가 ‘그 아기가’, 서술어가 ‘잔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③ ‘백두산은 장엄하고 금강산은 아름답다.’는 ‘백두산은 장엄하고’와 ‘금강산은 아름답다.’라는 두 개의 절이 이어진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나는 가을이 왔음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는 ‘가을이 왔음’이라는 명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선생님은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는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라는 인용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므로, ㉠에 해당한다.

02 문장 성분의 단계적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의 안긴문장 ‘인정이 많으신’에는 주어 ‘할아버지가’가 생략되어 있다. 참고로, ‘할아버지가 인정이 많으시다.’는 ‘인정이 많으시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의 안긴문장 ‘어머니가 만드신’에는 목적어 ‘간식’이 생략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안은문장의 목적어는 ‘인정이 많으신 할아버지를’이고, 안긴문장 ‘인정이 많으신’에는 목적어가 없다. 따라서 ‘할아버지를’을 안긴문장의 목적어이자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그가’는 ‘아님’의 주어이고, ‘범인이’는 ‘아님’의 보어이다. 따라서 ‘그가’와 ‘범인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라는 설

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머니가 만드신’은 체언인 ‘간식’을 수식하고 있지만, ‘맛있게’는 ‘먹고 있었다’를 수식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에는 안은문장 속에 부사어 ‘맛있게’가 있지만, ㉠에는 안긴문장 ‘그가 범인이 아님’ 속에 부사어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이어진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에 ‘-았-’, ‘-겠-’ 등의 선어말 어미는 쓰일 수 없지만,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시려고 집을 나서셨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는 쓰일 수 있으므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는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은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는 동사와만 결합할 뿐 형용사나 ‘체언+이다’와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절 뒤에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을 통해, 연결 어미 ‘-(으)려고’가 결합된 문장에서는 앞 뒤 절의 주어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대학을 졸업하기’는 목적으로 기능하는 명사절이 아니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기’는 뒤에 오는 체언 ‘전’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형이 잘못을 저질렀음’은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② ‘그녀의 판단이 옳았음’은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④ ‘일 년 후에 귀국하기’는 조사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⑤ ‘초보자가 배우기’는 조사 ‘에’, ‘도’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05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형이 나에게 물려준 옷이 마음에 든다.’에는 관형사절 ‘형이 나에게 물려준’에서 목적어로 해석되는 ‘옷을’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생략된 체인의 문장 성분을 부사어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그 고양이가 잡은 쥐가 많다.’에는 관형사절 ‘그 고양이가 잡은’에서 목적어로 해석되는 ‘쥐를’이 생략되어 있다.
- ③ ‘나는 어제 결혼한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에는 관형사절 ‘어제 결혼한’에서 주어로 해석되는 ‘그들은’이 생략되어 있다.
- ④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에는 관형사절 ‘시대에 뒤떨어진’에서 주어로 해석되는 ‘사고방식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내가 아까 빵을 산 제과점은 이 지역의 명물이다.’에는 관형사절 ‘내가 아까 빵을 산’에서 부사어로 해석되는 ‘제과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06 문장 종결 표현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㉞에 쓰인 ‘-자’는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청유형 종결 어미이다. ㉞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다 같이 서울로 출발’할 것을 요청 내지 제안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단독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 쓰인 ‘-다’는 현재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 어미이다. ㉠에서 화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린’다는 내용을 단순히 진술하고 있다.
- ② ㉡에 쓰인 ‘-느냐’는 물음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 어미이다. ㉡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아직도 밖에 비가 오’는지를 질문하여 그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 ③ ㉢에 쓰인 ‘-어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손’을 ‘씻’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⑤ ㉤에 쓰인 ‘-구나’는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감탄형 종결 어미로,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에서 화자는 ‘여기 경치가 참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언어 07	문장 ③	본문 76~80쪽
01 ③	02 ⑤	03 ①
05 ④	06 ②	04 ③

01 시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숙제하는’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로,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도와주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로 해석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먹고’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이나,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마셨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먹는’ 행위는 현재로 해석된다.
- ② ‘밝은’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이나,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서 있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밝은’ 상태는 현재로 해석된다.
- ④ ‘들으면서’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하신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듣는’ 행위가 현재로 해석된다.
- ⑤ ‘웃는’은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 문장의 마지막 서술어 ‘맞이하고 있다’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웃는’ 행위가 현재로 해석된다.

02 피동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는 사동문의 예이므로, ㉠과 같은 피동문의 예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산이 눈에 덮였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눈이 산을 덮었다.’가,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가 되어, 각각 ㉠과 ㉡의 부사어가 능동문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종이가 갈기갈기 찢겼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가,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렸다.’가 되어, 각각 ㉢과 ㉣의 서술어의 자릿수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에서 ‘그려졌다’는 ‘그리다’의 어간 ‘그리-’에 연결 어미 ‘-어’와 ‘지다’가 결합함으로써 구성된 형태이다.

④ ‘동생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라는 문장은 피동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응되는 능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03 사동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의 ‘반복하다’의 사동사로는 ‘반복시키다’를 쓸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나. ‘물러났던 관직이나 직업에 다시 종사하다.’라는 뜻의 ‘복직하다’의 사동사로는 ‘복직시키다’를 쓸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다. ‘제외시키다’는 ‘따로 떼어 내어 한데 헤아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의 ‘제외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므로, 일종의 과잉 사동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르. ‘소개시키다’는 ‘둘 사이에서 양편의 일이 진행되게 주선하다.’라는 뜻의 ‘소개하다’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므로, 일종의 과잉 사동에 해당하여 규범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04 높임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께서’는 주어의 지시 대상(‘기분 나빠하는 분들’)을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가 사용된 것이므로, 목적어의 지시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저)’는 말하는 이가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로, 상대방인 ‘선생님’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② ‘손님들께’에는 부사어의 지시 대상(‘손님들’)을 높이기 위한 격 조사 ‘께’가 사용되었다.

④ ‘하셨는데’에는 주어의 지시 대상(‘점장님’)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⑤ ‘그렇군요’에는 상대방인 ‘선생님’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사용되었다.

05 간접 높임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간접 높임이란 높임 대상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 가족 등을 높이는 형식을 통해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커피’는 높임 대상인 ‘손님’의 신체 일부나 소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주어가

‘커피’인데 불필요하게 ‘-시-’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간접 높임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손님께서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에는 이미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가 쓰이고 있다.

② 주체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 ‘-시-’와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가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주문하신’의 주어는 ‘손님’이므로 주어가 사물이라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담화 상황에 따라서 사물에 ‘-시-’를 꼭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⑤ ‘손님’ 뒤에는 ‘께서’가 이미 사용되었고, ‘커피’ 뒤에 ‘께서’가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부정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네 실수는 비단 그것만이다.”와 달리,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에서 ‘아니다’는 ‘비단’과 잘 어울리고 있는 것(“네 실수는 비단 그것만이 아니다.”)으로 보아, “네 실수는 그것만이 아니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라.”에서 “물러서지 마라”는 ‘결코’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마라.”)으로 보아,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라.”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다.”에서 “안 먹는다”는 ‘도무지’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남편은 아침을 도무지 안 먹는다.”)으로 보아, “남편은 아침을 안 먹는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그 제안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별로’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과 달리, “그 제안은 비현실적이다.”에서 “비현실적이다”는 ‘별로’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그 제안은 별로 비현실적이다.”)으로 보아, “그 제안은 비현실적이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⑤ “통계 수치가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그다지’와 잘 어울리고 있는 것과 달리,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다.”에서 “부정확하다”는 ‘그다지’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통계 수치가 그다지 부정확하다.”)으로 보아, “통계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부정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언어 08

담화

본문 81~84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①

01 담화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에서 ‘의미 2’의 경우 만약 화자와 청자가 날씨가 더우면 음료수를 사 마시자고 미리 약속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화의 의미는 ‘음료수를 사 마시자.’라는 의미로 확정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미리 약속한 상황이 아니라도 발화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 “날씨가 덥네.”라는 발화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날씨가 덥네.”라는 발화에 대한 의미가 3개 이상인 것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의미 1’과 관련하여 일기 예보를 화자와 청자가 함께 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 본 일기 예보의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 및 공감을 의도한 발화일 수도 있으나 만약 화자가 혼자 일기 예보를 본 상황이라면 청자와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의미 3’과 관련하여 만약 화자와 청자가 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가 있다면 ‘선풍기를 켜라.’라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2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아이에게 방을 청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도와 “방 좀 깨끗하게 치워라.”라는 문장의 유형은 명령문으로 형식이 일치하므로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엄마에게 아침밥을 준비해 줄 것을 재촉하는 것은 명령의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엄마, 저 빨리 밥 주세요.”라는 문장의 유형인 명령문과 형식이 일치하므로 직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② 내일 국어 수업 시간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발화의 의도와 “내일 국어 수업이 몇 교시이지?”라는 문장의 유형은 의문문으로 형식이 일치하므로 직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자녀에게 잠에 들 것을 권유하는 것은 발화 의도가 명령에 해당하나,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므로 간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틀린 문제를 학생에게 다시 풀어 볼 것을 권유하는 것은 발화 의도가 명령에 해당하나, 문장 형식은 의문문이므로 간접 발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03 지시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그거’가 지시하는 대상은 지우개이다. 이는 앞서 말한 내용에서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해당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지난번에 만났던 ‘거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장소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어제 먹었던 ‘그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음식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어제 쓰고 있던 ‘그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보고서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저번에 말했던 ‘그거’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의상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4 담화의 응집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디메틸설파이드’를 가리키며, 이 표현이 과도하게 반복되는 것을 줄임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식물 플랑크톤’을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 전반에 ‘구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그런데’는 ‘구름을 이루는 성분 대부분이 물이라는’ 앞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뒤 내용을 이끌어 나감을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이때’는 앞에서 진술한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

체 상태의 물방울이 될 때'를 가리키며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글의 경제성을 높이고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이'는 앞서 언급한 '이것(디메틸설파이드)'이 휘발되면서 구름 응결핵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앞에서 나온 내용을 대응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5 호칭어와 지칭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화자가 자신과 청자의 관계에 맞는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화자인 외숙모가 자신의 딸의 입장에서 청자와의 관계에 맞는 지칭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도 화자인 어머니가 청자인 채윤의 입장에서 사용한 지칭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은 모두 채윤의 외사촌 동생을 가리키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과 ㉣은 채윤의 어머니를, ㉤과 ㉥은 채윤의 할머니를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과 ㉧은 모두 채윤의 외숙모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각각 엄마, 채윤으로 달라 다르게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은 화자인 채윤이 자신과 외삼촌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칭 표현이고, ㉩는 외숙모가 청자인 채윤과 자신의 남편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한 지칭 표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6 담화의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직시는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인데 '매일'은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 아니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네'와 '이쪽'이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네가 이쪽으로 오면'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③ '지금'이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세 시간 동안'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④ '여기'가 직시 표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미국에 가려면'은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 ⑤ '이런'이 직시 표현이므로 '이런 식으로'는 발화 장면에서 따라 지시 대상이 달라지는 표현이다.

언어 09

국어사

본문 85~89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1 어휘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술지다'는 '술'과 '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연결 어미가 결합하지 않은 채 어간들만이 어근으로 쓰인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검붉다'는 원순 모음화를 거치며 현대 국어의 형용사 '검붉다'로 이어지고 있다.
- ② '뛰놀다'는 'ㅈ'을 'ㅊ'으로 표기하게 되고, 다시 'ㅊ'을 'ㅌ'으로 표기하게 됨에 따라 현대 국어의 동사 '뛰놀다'로 이어지고 있다.
- ④ '딛먹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찍어 먹다' 등의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 ⑤ '도콧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합성어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좃거나 굶다' 등의 구로만 표현할 수 있다.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왕이 좌시고 病이 도흐샤'와 '네 天下스 申에 못 도흐니라'에 모두 '도흐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하나의 형태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도흐다'는 '왕이 좌시고 病이 도흐샤'에서는 자동사로 쓰였고, '네 天下스 申에 못 도흐니라'에서는 형용사로 쓰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ㄹ마래 아니 그출썸'에서는 '그츠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닐웨예 닐굽 쇠줄 그쳐'에서는 '그츠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光明이 두루 비취더시니'에서는 '비취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光明이 世界를 스뵈 비취샤'에서는 '비취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마스미 여르샤 道를 得호시니'에서는 '열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큰 마스물 여러 쯤'

寂 버리고'에서는 '열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魔鬼神'뒤에 다 물러 흐터 가리이다'에서는 '흠다'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번개 구르물 흐터'에서는 '흠다'의 목적어가 드러나 있으므로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03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년글'을 의미상으로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帝業'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여르시니'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 보조사 '도'가 붙은 '흔 말도'가 '물흐야 잇더시니'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③ 목적격 조사 없이 '天地' 단독으로 'ᄃᆞ치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④ '글 비호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즐겨'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04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알라'와 '아르쇼셔'를 비교해 보면, '알라'에는 '-라', '아르쇼셔'에는 '-쇼셔'가 각각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별다른 선어말 어미의 사용은 확인할 수 없다. 참고로, '-쇼셔'는 청자를 아주 높이는 데 쓰인 '하쇼셔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大王아'와 '大王하'를 비교해 보면,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형태인 높임의 호격 조사 '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듣즈븃며'에는 '부터'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줄-'이 실현되어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아츨미'에서 '익'이 앞 체언에 붙어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하늬'에서 '시'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듣는다'가 '듣는가'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중세 국어의 '-나'가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가 주어가 2인칭일 때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로 쓰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모뎨'와 '法을'을 통해, 중세 국어에는 '뎨'와 같이 양성 모음을 가진 체언 뒤에서는 '을'로, '法'과 같이 음성 모음을 가진 체언 뒤에서는 '을'로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엇테'의 '엇'과 '듣즈반마르'의 '듣'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에서 'ㄷ'과 'ㅅ'이 각각 구분되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저그란'이 '적은'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의 '은'에 대응하는 보조사 '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저믄'이 '어린'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점다'가 현대 국어의 '젊다'와 달리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06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法이(=法+이)'는 자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이'로 나타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부테(=부터+ㅣ)'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ㅈ'이 아닌 모음 뒤에서 주격 조사가 'ㅣ'로 나타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아히(=아히+∅)'는 반모음 'ㅈ' 뒤에서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羅雲이드려'는 '羅雲이' 뒤에 부사격 조사 '드려'가 붙은 형태이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는 '너' 뒤에서 주격 조사가 'ㅣ'로 나타난 사례이므로 ㉢에 해당한다. <자료>의 '부터'가 '부처를'에 대응되는 것을 통해, '부터'가 주어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만약 '부터'가 주어로 쓰일 때도 '부터' 뒤에는 주격 조사가 'ㅣ'로 나타나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어 10

종합 1

본문 90~94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②

01 음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바느질’은 ‘바늘’과 ‘-질’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단골집’은 ‘단골’과 ‘집’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나무’는 ‘술’과 ‘나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나날이’는 ‘날 + 날 + -이’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돌도끼’는 ‘돌’과 ‘도끼’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물집’은 ‘물’과 ‘집’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지 않은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④ ‘화살’은 ‘활’과 ‘살’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버들’과 ‘나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여닫이’는 ‘열 + 닫 + -이’에서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아드님’은 ‘아들’과 ‘-님’이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한 사례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02 음운의 변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뽕눈’의 경우 15세기에는 음절 종성에서 ‘ㄹ’과 ‘ㅂ’이 모두 발음되다가 이후 음운 변동을 겪게 되었을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의 ‘뽕눈’은 [뽕:눈]으로 발음되고 있다.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6세기 이후 유음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ㄴ눈’의 경우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용언의 어간 받침 ‘ㄹ’이 탈락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알눈’의 경우 ‘알-’의 ‘ㅎ’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므로 적절하다.

③ ‘숯-’과 같이 ‘ㄹ’계 자음군이 어간의 받침인 경우에는 ‘ㄹ’이 ‘ㄴ’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술립’의 경우 유음화가 표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문법 단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관형사가 아니라 대명사이다. 문장 내에서는 체언 ‘아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명사이며,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을 수 있는 부사어이다.

② ㉡은 대명사이며, 목적격 조사 ‘를’이 붙을 수 있는 목적어이다.

④ ‘오늘’은 명사, 부사로 품사 통용이 되는 말이다. ‘오늘의 날씨’처럼 조사가 붙는 경우는 명사로, ‘오늘 온다.’처럼 서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부사로 볼 수 있다. ㉢은 부사이며,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이다.

⑤ ㉣은 명사이며, ‘되다’가 요구하는 보어이다.

04 어미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과 ㉢의 ‘-고’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그 용언이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성 어미가 아니라 연결 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게’, ㉡의 ‘-고’, ㉢의 ‘-은’, ㉣의 ‘-고’, ㉤의 ‘-ㅂ니다’는 모두 어말 어미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의 ‘-게’는 전성 어미인 부사형 어미이고, ㉢의 ‘-은’은 전성 어미인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었고, ㉢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의 ‘-ㅂ니다’는 상대 높임을 실현하면서 문장을 종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5 겹문장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라)에서 관형사절은 ‘그가 (글을) 쓴’과 ‘(사람들이) 많은’

이다. 생략된 문장 성분은 보어가 아니라 각각 목적어와 주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탐구 결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그는 줄넘기를 하려고, (그는) 집을 나쳤다.’에서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하여 하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나)에서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는 (수학을) 싫어한다.’에서 두 절의 목적어가 동일하여 하나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다)에서는 ‘(나무가) 큰’에서 관형사절의 주어인 ‘나무가’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마)에서는 ‘지난주에 (수족관에) 갔던’에서 관형사절의 부사어인 ‘수족관에’가 생략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6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쓰다’의 반의어가 ‘지우다’일 때에는 ‘쓰다’가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쓰다’의 반의어가 ‘달다’일 때에는 ‘쓰다’가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씹바귀의 맛과 같다.’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둘은 동음이의어로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반의어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독하다’가 ‘맛, 냄새 따위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고 자극적이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순하다’일 수 있고, ‘의지가 강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약하다’일 수 있다.
- ③ ‘서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발을 땅에 대고 다리를 쭉 뻗으며 몸을 곧게 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앉다’일 수 있고,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무더지다’일 수 있다.
- ④ ‘열다’가 ‘달히거나 잠긴 것을 뜨거나 벗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달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터놓거나 이야기를 시작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반의어가 ‘다물다’일 수 있다.
- ⑤ ‘벗다’는 ‘옷을 몸에 껴거나 두르다.’의 의미를 지니는 ‘입다’의 반의어가 될 수도 있고, ‘신, 버선, 양말 따위를 발에 꿰다.’의 의미를 지니는 ‘신다’의 반의어가 될 수도 있다.

언어 11

종합 ②

본문 95~99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1 국어의 자음 체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앞집[압집]’에서 ‘앞’의 파열음 거센소리 ‘ㅍ’은 파열음 예사소리 ‘ㅂ’으로 바뀌었는데 조음 위치(입술소리)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맛밭이[만빠지]’에서 ‘맛’의 파찰음 예사소리 ‘ㅈ’은 파열음 예사소리 ‘ㄷ’으로 바뀌면서 센입천장소리가 잇몸소리로 바뀌는 조음 위치의 변화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밤물[밤물]’에서 ‘ㅂ’이 ‘ㅁ’으로, ‘앞집[압집]’에서 ‘ㅍ’이 ‘ㅂ’으로, ‘ㅈ’이 ‘ㅉ’으로 바뀌었다. ‘신라[실라]’에서 ‘ㄴ’이 ‘ㄹ’로, ‘앞마당[암마당]’에서 ‘ㅍ’이 ‘ㅁ’으로 바뀌었다. 이 모든 음운 변동에서 조음 위치에는 변화가 없다.
- ② ‘앞마당[암마당]’에서 ‘ㅍ’이 ‘ㅁ’으로 바뀌었다. 이는 파열음 거센소리 ‘ㅍ’이 파열음 예사소리 ‘ㅂ’으로 바뀐 후(‘앞집[압집]’에서 ‘ㅍ’이 ‘ㅂ’으로 바뀐.), 뒤 음절의 비음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바뀌었다고(‘밤물[밤물]’에서 ‘ㅂ’이 ‘ㅁ’으로 바뀐.) 설명할 수 있다.
- ③ ‘밤물[밤물]’에서는 파열음 예사소리 ‘ㅂ’이 비음 ‘ㅁ’으로 바뀌었다. ‘신라[실라]’에서는 비음 ‘ㄴ’이 유음 ‘ㄹ’로 바뀌었다.
- ⑤ ‘맛밭이[만빠지]’에서 ‘맛’의 파찰음 센입천장소리 ‘ㅈ’은 파열음 잇몸소리 ‘ㄷ’으로 바뀌었다. 또한 ‘밭’의 파열음 잇몸소리 ‘ㄷ’은 파찰음 센입천장소리 ‘ㅈ’으로 바뀌었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라 한다. 예를 들어 ‘개-진돗개’의 관계를 들 수 있으며, 이때 전자를 상의어, 후자를 하의어라 한다. ‘벌리다, 느끼다’는 ‘뜨다²’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즉 ‘벌리다’는 ‘뜨다²」1」의, ‘느끼다’는 ‘뜨다²」2」의 사전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상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동음이의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말한다.

② ‘중심 의미’는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닐 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말한다. 그리고 이 중심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를 ‘주변 의미’라 한다. 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심 의미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④ 단어들의 유의 관계는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유의어가 된다. 또한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과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른 경우도 많다.

⑤ ‘뜨다¹-㉠’은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라는 뜻이므로 반의어는 ‘가라앉다’, ‘내려앉다’와 같이 ‘방향’과 관련된 의미 자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03 문장 성분별 특성-서술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내일 보낼 편지를 써 두어야 한다.’에서 ‘두다’는 동사 뒤에서 ‘-어 두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하다’는 ‘-어야 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는 편지를 쓰고 있지 않다.’에서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그 행동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않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② ‘-(으)며, -(으)면서’는 두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③ ‘오늘은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고 싶다.’에서 ‘맞다’와 ‘걷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본용언의 연속에 보조 용언 ‘싶다’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 ㉡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동생은 숙제를 하고 나서 쉬었다.’에서 ‘하다’는 ‘숙제를’을 목적어로 하는 본용언이다. 또한 이 문장에서 ‘나다’는 ‘-고 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쉬다’는 ‘하다’와 시간적 선후 관계가 있으므로 따로 일어나는 동작임을 알 수 있다.

04 안은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명사절 ‘아침에 운동하기’에 부사어 ‘아침에’가 있다. ㉡은 관형사절 ‘친구들을 지켜보던’에 부사어가 없다. 참고로, 부사절 ‘아무런 소리도 없이’는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내가 최근에 산’, ㉡의 ‘부지런한’, ㉢의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의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 ㉤의 ‘친구들을 지켜보던’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절이다.

② ㉠의 ‘값이 아주 비싸다’, ㉢의 ‘인구가 매우 많다’, ㉣의 ‘규모가 컸다’는 서술절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③ ㉠의 ‘내가 최근에 산’은 ‘사다’의 목적어가 생략된 절로, ㉣의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은 ‘찾아보다’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생략된 절로 볼 수 있다.

⑤ ㉢의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의 ‘아무런 소리도 없이’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05 담화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그렇게’는 ‘그러하게’가 줄어든 말로, 이미 언급한 말이나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보기>의 담화 상황으로 보아 ㉠의 대용 표현은 앞서 딸이 말한 내용(급한 약속이 생겨 못 갈 것 같다.)을 대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잠을 자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의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어쩔’이 감탄사로 쓰이면 ‘뜻밖의 일 따위에 탄복할 때 나오는 소리.’이다. 딸의 발화가 의외여서 감탄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풀다’의 피동사 ‘풀리다’가 사용된 피동문이다. 피동 표현에는 화자의 의도나 심리가 담겨 있을 때가 많은데, 여기서 화자가 풀려고 하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과제’에 초점을 두어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담화 상황으로 보아 부정 부사 ‘못’은 급한 약속으로 인해 할머니 댁에 갈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06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받즈온’에는,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즈- / -줄-’에서 변화된, 선어말 어미 ‘-즈오-’가 결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부모’를 높이고 있다. 현대 국어에서 ‘-자오-’는 예스러운 표현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참고로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 또는 ‘ㄱ’가 이어진 경우 이 모음과 결합하여 ‘고’ 또는 ‘구’로 바뀌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고, ㉡에는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이다.
- ② ㉢는 ‘슬ㅎ’에 ‘은’이 결합한 형태로 현대 국어 ‘살’에는 없는 자음이 있고, ㉣의 ‘일흠’에는 현대 국어 ‘이름’에는 없는 자음이 있다.
- ③ ‘비르소미오’는 ‘비르숨’에 ‘이오’가 연결된 것이다. 여기서 ‘비르숨’은 ‘비르-’에 ‘-움’이 결합한 형태로, ‘비르-’의 끝소리 ‘ㅅ’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르숨’의 끝소리 ‘ㅁ’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 적고 있다. 그런데 ‘ㅁ춤이니라’에서는 ‘ㅁ춤’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끊어 적고 있다.
- ④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일을 두음 법칙이라 한다. ‘이, ㅈ, ㅊ, ㅊ, ㅊ, ㅊ’ 앞에서의 ‘ㄹ’과 ‘ㄴ’이 없어지고, ‘ㅈ, ㅊ, ㅊ, ㅊ, ㅊ’ 앞의 ‘ㄹ’은 ‘ㄴ’으로 변하는 것 따위를 말한다. ㉤의 ‘닐러’는 이러한 현대 국어의 제약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언어 12

종합 ③

본문 100~104쪽

01 ③
05 ①

02 ④

03 ⑤

04 ①

01 음운 변동 - 탈락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값있는[가빈는]’은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 ‘값’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인 ‘있-’이 오는 경우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값’의 겹받침 ‘ㅁ’ 중 ‘ㅅ’이 탈락하고 남은 ‘ㅂ’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발음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삶만[삼:만]’은 겹받침 ‘ㅁ’을 가진 ‘삶’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만’이 오는 경우이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② ‘읽어[일거]’는 겹받침 ‘ㄹ’을 가진 ‘읽-’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어’가 오는 경우이므로, 연음만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 ④ ‘맏거든[만:커든]’은 ‘맏-’의 겹받침 ‘ㅎ’ 중 ‘ㅎ’이 뒤따르는 ‘-기’와 합쳐져 ‘ㄱ’으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 ⑤ ‘넓고[널꼬]’는 ‘넓-’의 ‘ㅂ’ 뒤에서 된소리되기 가 먼저 일어난 후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ㅂ’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02 표준 발음법에 관한 조항 - 받침의 발음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옳는’의 표준 발음이 [음는]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ㅃ’에서 ‘ㄹ’이 탈락하고 ‘ㅍ’이 남는 양상(‘ㅍ’은 음절 종성에서 [ㅂ]으로 발음됨.)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앓다’의 표준 발음이 [안따]인 것은 공명음인 ‘ㄴ’과 장애음인 ‘ㄷ’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ㄸ’에서 ‘ㄷ’이 탈락하고 ‘ㄴ’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② ‘여덟’의 표준 발음이 [여덜]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ㅂ’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ㅃ’에서 ‘ㅂ’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③ ‘외곶’의 표준 발음이 [외곶]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ㅆ’에서 ‘ㅅ’이 탈락하고 ‘ㄹ’

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⑤ ‘활는’의 표준 발음이 [활른]인 것은 공명음인 ‘ㄹ’과 장애음인 ‘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겹받침 ‘ㅌ’에서 ‘ㅌ’이 탈락하고 ‘ㄹ’이 남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03 단어의 의미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그의 영향력은 말 한마디에 온 나라를 들었다 놓을 정도였다.’에서 ‘들었다 놓다’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므로, ‘들다¹-[1]-[1]’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것이 ‘들다¹-[1]-[1]’을 활용한 관용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들었다 놓다’는 ‘들다³’과 관련한 관용구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들다²’는 목적어 없이 쓰이므로, 자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들다³-[1]’과 ‘들다¹-[2]’의 제시된 문형 정보를 보면, ‘들다³-[1]’은 주어 외에도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며, ‘들다¹-[2]’는 주어만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 ③ ‘들다¹-[1]-[2]’의 의미와 제시된 용례를 고려하면, ‘들다¹-[1]-[2]’의 용례로 ‘아침이면 이 방에 별이 잘 들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들다³-[2]’의 의미를 고려하면, 그 반의어가 쓰인 예로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옮겨 놓다.’라는 의미인 ‘내리다’가 쓰인 문장 ‘쌀가마니를 바닥에 내리다.’를 제시할 수 있다.

04 안은문장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의 명사절 ‘따뜻한 봄이 오기’의 주어인 ‘따뜻한 봄이’는 안은문장의 주어 ‘우리는’과 다르며, 생략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관형사절 ‘내 생일에 새 자전거를 사 주실’의 주어는 ‘아버지는’인데, 안은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는’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 관형사절 ‘저희를 집으로 부른’의 목적어는 ‘저희를’인데, 안은문장의 주어인 ‘아들 내외는’과 의미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의 인용절 ‘자기의 도끼를 찾아 달라고’의 관형어는 ‘자기의’인데, 안은문장의 주어인 ‘나무꾼은’과 의미하는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 ⑤ ㉤에서 ‘그는 부지런하므로’와 ‘(그는) 필시 성공할 것이다.’

의 주어는 둘 다 ‘그는’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가 한 번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請ᄃᆞᆫ스바’와 ‘請ᄃᆞᆫ야’를 비교해 보면, ‘請ᄃᆞᆫ스바’에는 ‘태자’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이 실현되었으나 ‘請ᄃᆞᆫ야’에는 별다른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달’이 ‘태자’는 높이고 ‘대신’은 높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이받즈보려’와 ‘이바도려’를 비교해 보면, ‘이받즈보려’에는 ‘태자’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줄-’이 실현되었고 ‘이바도려’에는 별다른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수달’이 ‘태자’는 높이고 ‘아술’은 높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므로 이를 통해 문장의 주어인 ‘주인’을 높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③ ‘請ᄃᆞᆫ스보려’에는 ‘부터와 중’을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이 실현되었다. ‘호미’가 ‘부터’는 높이고 ‘중’은 높이지 않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請ᄃᆞᆫ스바’와 ‘請ᄃᆞᆫ스보려’에 실현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슬-’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인 형태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슬-’으로 실현되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이받즈보려’에 실현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줄-’은 어간 말음이 ‘ㄷ’이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의 형태이므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말음이 ‘빙’으로 교체되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언어 13

종합 4

본문 105~107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②

01 품사의 특성-체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듯이’는 ‘떨 듯이 기뻐하다.’, ‘아는 듯이 말했다.’처럼 다양한 서술어가 후행할 수 있으며 서술어에 제한이 있는 의존 명사가 아니다. 따라서 ‘듯이’의 뒤에는 ‘없다’나 ‘있다’만이 후행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존 명사 ‘김’은 ‘-은/는 김에’ 구성으로 쓰이므로 격 조사 결합의 제약을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의존 명사 ‘바람’은 항상 ‘-는 바람에’ 구성으로 쓰이므로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가 제한되는 의존 명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의존 명사 ‘개’는 자립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의존 명사로만 쓰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순가락’은 ‘순가락으로 밥을 뜨다.’에서와 같이 자립 명사이지만, ‘두 순가락’에서처럼 단위성 의존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02 문장 성분의 단계적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담근’에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생략된 절이 안겨 있으므로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에는 ‘(편지를) 쓴’과 같이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고, ㉢에는 ‘(친구들이) 많은’과 같이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관형사절과 서술절, ㉡에는 관형사절과 명사절, ㉢에는 관형사절과 명사절이 안겨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② ㉠의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머니가 담근 김치는’이고, 서술절인 ‘맛이 좋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③ ㉡의 ‘결심했다’는 주어 ‘나는’과 부사어 ‘친구에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보내기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한다.
- ⑤ ㉢에서는 명사절 ‘친구에게 오래전에 쓴 편지를 보내기’에

부사격 조사 ‘로’가 결합하여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에서는 명사절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함’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풀잎만’은 ‘ㄴ’ 첨가, 유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일어나 [풀립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풀님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꽃잎은’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꼴니픈]으로 발음된다.
- ② ‘없네’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가 일어나 [엄:네]로 발음된다.
- ③ ‘땀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땀찌]로 발음된다.
- ④ ‘못하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모타고]로 발음된다.

04 문장의 의미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실패’와 ‘우승’이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이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펭귄’이 ‘새’보다 하위어이기 때문에 앞 문장이 뒤 문장을 함의하게 된다.
- ② 보조사 ‘는’이 대조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집이 아닌 곳에서는 말을 잘 안 하거나, 말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의미 중 하나를 함의할 수 있게 된다.
- ④ ‘남편’과 ‘아내’가 반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구조가 다른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게 된다.
- ⑤ ‘책방’과 ‘서점’이 동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두 문장이 서로를 함의하게 된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고’ 앞에 놓이므로 ‘므스’가 들어가는 것이 옳고, ㉡은 부사격 조사 ‘과’ 앞에 놓이므로 ‘므슴’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언어 14

종합 6

본문 108~111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④

05 ④

01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ㄱ. ‘차가운’, ‘뜨거운’이나 ‘깨끗한’, ‘더러운’은 모두 ‘물’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단위이다.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나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모두 가능한데, 이로 보아 ‘차가운’, ‘뜨거운’이나 ‘깨끗한’, ‘더러운’은 서로 계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ㄴ. ‘뜨거운 차가움’은 ‘뜨거운’과 ‘차가움’이 결합 관계를 맺고 있는 표현으로, 두 단어는 의미상 모순된다.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으로, 두 단어의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ㄷ. ‘시끄러운 고요’는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고요’를 ‘정적’으로 바꾸더라도 공기 제약의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요’나 ‘정적’의 의미와 모순되는 ‘시끄러운’이라는 수식어와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 ‘적은 함유량’에서 ‘적은’을 ‘낮은’으로 바꾸면 ‘낮은 함유량’이 된다. 이렇게 바꾼 ‘낮은 함유량’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공기 제약을 위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상하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은 하위어가 상위어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관계인 일방 함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동물’과 ‘나귀’는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동물’이라고 해서 항상 ‘나귀’인 것은 아니므로 ‘동물’은 ‘나귀’를 함의하지 않지만, ‘나귀’는 항상 ‘동물’이므로 ‘나귀’는 ‘동물’을 함의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생물-동물-당나귀/나귀’라는 계층적 구조 내에서 ‘생물’이나 ‘동물’은 ‘당나귀’나 ‘나귀’에 비해 상위어에 해당한다. 하위어가 상위어보다 더 많은 수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 상위어인 ‘생물’이나 ‘동물’이 하위어인 ‘당나귀’나 ‘나귀’보다 항상 많은 수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생물-동물-당나귀’는 계층적 위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물’과 ‘당나귀’, ‘생물’과 ‘동물’, ‘동물’과 ‘당나귀’는 모두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④ ‘생물’과 ‘무생물’이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인 반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무생물’과 ‘동물’은 반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리고 ‘당나귀’와 ‘나귀’는 의미상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를 맺고 있다.

⑤ ‘동물’은 ‘생물’과의 관계에서는 하위어이다. 하지만 ‘동물’은 ‘당나귀’와의 관계에서는 상위어이다.

03 로마자 표기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학여울’은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 [항녀울]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대관령’은 유음화가 일어나 [대:괘령]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팔당’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팔땅]으로 발음된다. ‘Palttang’으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묵호’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무코]로 발음된다. ‘묵호’의 로마자 표기는 ‘Mukho’인데, ‘Muko’로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변동의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월곶’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월곶]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결과대로 로마자를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문장 성분별 특성 - 부사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 있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함께 쓰여 하나의 서술어가 된 형태이다. ‘가’는 용언의 어간 ‘가-’에 연결 어미 ‘-아’가 결합될 때 두 개의 ‘ㄱ’ 중 하나가 탈락된 형태로, 서술어의 일부인 본용언에 해당한다. 용언 어간이 그대로 부사어로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늦게’는 용언 어간 ‘늦-’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된 형

태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② ‘학교에’는 체언 ‘학교’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③ ‘이미’는 단일어 부사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⑤ ‘곧바로’는 부사 ‘곧’과 부사 ‘바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05 근대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거늘’은 앞 절과 뒤 절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하지만 두 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홍식이’에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 방식인 끊어 적기가 적용되었다.

② ‘쨌노더니’에서 ‘ㄷ’은 합용 병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③ ‘소티를’에는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되어 있다. 이를 볼 때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붙기’에서 ‘-기’는 ‘붙-’을 명사의 기능을 하게 만드는 명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매체 01

본문 112~116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시 관계자 인터뷰를 삽입해 공중 보행로 설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중 보행로 설치 후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시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광장의 공중 보행로 건설은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면 침체된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시에서 공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기자의 두 번째 발화 중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 보행로 사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를 보면, 기자는 공중 보행로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민 1’의 발화인 ‘공중 보행로가 생기면~기대가 됩니다.’와 ‘시민 2’의 발화인 ‘공중 보행로는 너무~쁜 일입니다.’를 보면,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해 ‘시민 1, 2’를 인터뷰한 내용을 삽입하여 시민들이 공중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를 보면, 진행자는 기자에게 공중 보행로를 대신할 수 있는 지하도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보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 [장면 1]을 보면 보도의 제목인 ‘○○시 △△광장에 공중 보행로 설치, 필요한가?’를 방송의 첫 부분에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장면 3]을 보면 화면 하단에 ‘시민 2’의 인터뷰 내용 중 핵심 내용인 ‘공중 보행로와 관련해서 각종 사고 우려돼’라는 자막을 넣어 전달력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보도 전체에서 진행자는 방송 매체의 공적 특성을 고

려해 ‘이를 취재한 김□□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공중 보행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과 같이 시청자와 기자에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 근거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 숫자가 포함된 정보에 대한 시각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 ‘학생 3’은 다른 도시에서 공중 보행로를 만들 때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설계 방식과 관련한 건축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여 준 사례를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도시와 대비되는 ○○시만의 특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학생 1’은 공중 보행로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심 상징물이 되면 도시 홍보가 될 수 있다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중 보행로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학생 2’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면서, 공중 보행로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2’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B]에서 ‘학생 2’는 실제 생활에서 예상되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근거로 내세우며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B]에서 ‘학생 1’은 방송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설계 기준과 내진 기준 관련 내용을 새로운 근거로 내세우며 ‘시민 2’의 입장과는 달리 공중 보행로 설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응답하다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생겼을 때 설문 조사의 주체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설문지 안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관련 방송 보도 바로 가기’를 통해 설문 내용과 관련한

자료가 궁금한 경우 바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설문에 응답한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설문 조사의 주체에게 제출이 되는 온라인 설문지이므로 적절하다.

④ 이유를 묻고 있는 2번, 3번 문항에 서술형으로 답할 수 있는 ‘기타’ 선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 동아리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방송 보도의 [장면 2]에서 사용되었던 공중 보행로의 이미지가 설문지 우측 상단에 삽입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고난도·신유형**

수능 1등급을 향한 고난도 문항집
신유형과 킬러 문항 완벽 대비!

매체 02

본문 117~121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사회자와 대담 참여자는 모두 격식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ㄱ), 실시간으로 인터넷 게시판의 시청자 의견을 확인하여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다(ㄷ).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 주민 등록 번호 폐지와 관련하여 임의의 조건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매체 수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ㄹ. 시청자 의견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담 참여자와 시청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장면 4]에서는 강 연구원이 새롭게 제시한 내용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대담 참여자가 제시한 근거 자료를 화면에 직접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대담 참여자가 주장한 내용의 타당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면 1]은 한 화면에 사회자와 대담자를 보여 주고 있으며, ‘주민 등록 번호 제도를 유지해야 할까?’를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가 대담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장면 2]는 신 박사의 주장에서 ‘실효성 논란’이라는 핵심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신 박사의 주장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장면 3]은 대담 참여자의 대립적인 입장을 보여 주며 ‘폐지 vs 유지’를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가 주민 등록 번호와 관련한 대담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⑤ [장면 5]는 [장면 1]에서 제시하였던 ‘주민 등록 번호 제도를 유지해야 할까?’를 다시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대담의 주요 내용을 환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학생은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음을 밝히며, 텔레비전은 다양한 사람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청자의 수준을 감안한 정보 전달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은 다양한 매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매체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았다.

③ 학생은 시청자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점은 언급하였으나 매체가 전달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았다.

④ 학생은 방송 프로그램에 할애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최신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았다.

⑤ 학생은 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매체 수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았다.

04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뉴스 진행자가 소개하고 있는 법안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것으로,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법안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반대 측의 입장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② 일부 누리꾼의 의견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논평에서 인용한 누리꾼의 의견 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③ 30조 900억 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보고서가 4년 전 자료라고 하였으므로, 현재 기준에서는 추산의 근거가 달라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목에서 제시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④ 법안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가짜 뉴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법안이 모든 가짜 뉴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적절하다.

0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소개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두 매체에 나누어 게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을 균형 있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각각의 주장과 논거를 대비하여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 ②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인식 수준이나 이해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려운 개념을 적절한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 ③ 학생들의 관심이 다르다는 점에서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알게 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 ④ 학교 누리집은 신문과 달리 멀티미디어 활용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학교 누리집에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이다.

매체 03

본문 122~129쪽

01 ③
05 ④

02 ⑤

03 ⑤

04 ②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장면 5]를 보면, 연주자가 바로크 음악에 대해 설명하고는 있으나 바로크 음악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악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도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송의 처음 화면인 [장면 1]을 보면, 프로그램명 자막을 제시하고 배경 음악을 삽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장면 2]를 보면, 연주자를 소개할 때 시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주자의 이름을 자막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장면 6]을 보면, 비발디 음악을 시청자에게 들려주기 위해 연주 실행 영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장면 7]과 [장면 8]을 보면, 진행자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시청자 게시판의 실시간 댓글 질문을 살펴본 후, 연주자에게 댓글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를 보면, 연주회의 제목, 일시, 장소, 주최 기관,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를 보면, 시각 자료를 구성할 때에는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선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주회와 관련된 여러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연주회의 제목, 일시, 장소, 주최 기관,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를 보면, 제일 먼저 배치한 것은 연주회 일시가 아니라 연주회의 제목임을 알 수 있다.
- ② [A]를 보면, 주최 기관은 연주곡에 비해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작은 글씨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된 것은 **프로그램 소개**와 같이 ‘프로그램 소개’이다. 따라서 주최 기관은 연주곡에 비해 중요

한 정보이므로 그림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A]를 보면, 연주회의 제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큰 글씨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연주곡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작품 번호를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주회의 제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주곡의 작품 번호를 상세히 제시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A]를 보면, 프로그램 소개는 왼쪽부터 작곡가, 연주곡, 연주 소요 시간의 순서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의 내용과 연주회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지난번 음악 동아리 활동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음악 동아리의 활동 내용 구성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같이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소개된 비발디 음악의 특징에 대해 공감하였음을 표현하였다.
- ② <http://www.△△△.kr>, <http://www.□□□.kr>과 같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다른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③ 대화 중에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에서 증음 주법이 잘 드러나는 연주곡으로 설명한 무반주 첼로 모음곡 3번에 대해 찾아보고 있다.
- ④ ‘ㅎㅎ’, ‘ㅋㅋ’와 같이 한글의 특정한 자음자를 활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와 관련된 연주곡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혹시 책으로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어 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영상 매체라 할 수 있는 영화 『소나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와 같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져 소설과 영화라는 각각의 매체를 통해 동일한 작품을 접한 경험을 확인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청중에게 낯선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소나기」라는 소설과 동명의 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여러 작품을 감상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학생들의 감상 경험이 다름을 보여 주기 위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작품 감상에서 느끼는 매체 간의 심미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05 언어적 표현과 심미적 가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에는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와 같이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소년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보기>에는 [A]와 달리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소년의 심정이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상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의 #1, #2, #6, #7 등을 보면, <보기>와 달리 개울가의 풍경이 그림으로 시각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보기>에는 [A]와 달리,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와 같이 소년이 물속의 얼굴을 움키는 행위를 반복하게 된 이유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보기>는 [A]와 달리, ‘숨어서 내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좋겠다.’와 같이 소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난 후의 소년의 내면이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드러나 있다.
- ⑤ [A]와 <보기>에는 모두, 소녀가 나타난 후에 소년이 달리다 한 발이 물에 빠지는 등 당황해하는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매체 04

본문 130~136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1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다) 모두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운전자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면 긴급 차량이 골든타임을 놓쳐 타인의 생명이 위협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나)는 운전자가 도로 위를 보행하는 어린이를 먼저 살펴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다)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이 운전자 자신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다)는 운전자 본인이 처할 위험에, (가)와 (나)는 타인이 처할 위험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다)는 모두 운전자가 가져야 할 준법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가 처벌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고, (나)와 (다)가 보상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다)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차량이 주차하는 상황과 관련이 없다. 또한 (가)~(다) 모두 보행자의 경계심을 일깨우는 것과 관련이 없다.
- ④ (다)는 운전자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언급하고 있을 뿐, 집단이 입을 피해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 ⑤ (나)는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와 (다)는 이와 관련이 없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 1위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임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교통사고 원인'을 '스마트폰 사용'에 빗대어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분석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피하다의 '피'가 영어 알파벳 'P'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긴급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지 않도록 피해서 주차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는 'P해 가지 않게'와 'P해 주세요'를 나란히 배치해 서로 비슷한 글귀를 짝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는 '도로 위의 어린이'를 차량에 멈춤을 지시하는 '빨간 신호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다)는 'SNS를 멈추지 않으면'과 '당신이 멈추게 됩시다'를 나란히 배치해 서로 비슷한 글귀를 짝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03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5의 화면 영상은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쓴 인부의 모습이다. 위험물이 많은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쓴 것은 '안심은 원칙을 좋아합니다.'라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5를 자막 및 음성에 담긴 내용과 상반되는 모습의 인물을 보여 주었다고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에서는 두 갈래 길 표지판의 시각 이미지를 화면에 제시하여 우리 안에 방심과 안심이라는 '두 마음'이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8에서 차 안에서 본 모습으로 다시 제시하여 주제에 대한 수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분석이다.
- ② #2의 화면 좌측과 #3의 화면 우측에 어린이 보호 구역 표지판을 배치하여 #2의 승용차가 빨리 가기 위해 스쿨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과 #3의 아이들이 조심조심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 모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같은 구역에서 일어났음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분석이다.
- ④ #6과 #7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인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6의 남녀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있고, #7의 아이는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처럼 헬멧 착용 여부가 대비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헬멧을 쓰는 것(기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분석이다.

⑤ #9에서 ‘방심인가요? 안심인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안전띠를 매는 아이의 행위를 통해 암시하여 사용자가 ‘안심’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는 적절한 분석이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진행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는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의 제목에는 ‘(광고)’라는 표시가 있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글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광고가 목적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메일로 전송된 광고의 경우 전송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와 관련된 정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임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설명과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 유용한 정보처럼 보이거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진행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는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므로 관련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스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하단에 메일 전송자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정확한 정보라면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진행자는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인지를 살펴보라고 언급하면서, 수신자가 사전에 수신을 동의했다면 수신 동의에 대한 정보를 전송자가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하단에 수신자가 정보 수신에 동의했음을 고지하고 있다. 이에 수신자가 사전에 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면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진행자는 광고성 정보가 담긴 메일 안에 수신 거부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수신 거부는 명시된 방법에 따라 본문 내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스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는 하단에 메일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수신 거부]를 클릭하라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수신 거부를 클릭했을 때 본문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광고성 정보의 전송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광고에서 제시한 정보에 논리적으로 모순된 내용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광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㉔에 제시된 후기들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로 대립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㉓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임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제품의 기능성을 공식적인 인증 기관에서 인증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것은 ㉓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정보인지를 검증하려는 것이므로 (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적절한 반응이다.

② ㉔는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 기관에서 연구한 자료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㉔를 발표한 기관이 화장품의 성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지를 묻는 것은 자료의 출처를 확인해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므로 (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적절한 반응이다.

③ ㉕는 제품의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힌 부분이다. ㉕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은 ㉕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공정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므로 (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적절한 반응이다.

④ ㉖에서는 제품의 품질 관리 기준이 까다롭다고 언급하면서 품질 관리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㉖의 품질 관리 기준이 까다롭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묻는 것은 누락된 정보를 확인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므로 (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적절한 반응이다.

매체 05

본문 137~142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1 매체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인쇄 매체인 종이 신문이다. (가)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페이지와 관련된 기사를 지면 상단에 배치해 비중 있는 분량으로 다루는 데 비해, ‘안전 교육관’ 개관과 관련된 기사는 지면 하단에 짧게 다루고 있다. 이는 기사에서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의 배치와 분량을 달리한 것이다. 따라서 (가)의 매체가 기사의 배치와 분량을 달리하여 정보의 중요도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나)의 기사들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달되며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는 생산자가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수용자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가)에는 신문을 발행한 언론사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사 하단에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자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④ (가)는 인쇄 매체인 종이 신문이므로 인쇄되어 유포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반면 (나)는 인터넷 매체로, 인터넷망을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수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나)는 인터넷 매체로,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기사에 첨부하여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인쇄 매체이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각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는 첨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2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는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의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기사 중 수용자에게 필

요한 기사의 내용만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여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수용자가 기사의 제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에서는 검색의 결과로 제시된 기사 하단에 관련 기사가 함께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사를 클릭하여 검색한 기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② (나)에서는 기사의 정렬 기준을 ‘정확도순’과 ‘최신순’, ‘오래된 순’으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기사가 노출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나)에는 검색어와 관련된 여러 언론사의 기사가 한 화면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각각 클릭하여 검색어와 관련한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④ (나)에서는 기사별로 작성된 일자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시점에 작성된 기사들을 서로 비교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 페이지’라는 화제에 대한 언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03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일보’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폐지되어 불편하다는 누리꾼의 반응을 기사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신문’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 폐지에 대하여 누리꾼의 엇갈리는 반응을 기사에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신문’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광고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져 폐지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폐지된 배경을 기사에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일보’는 지하철 지연으로 시민들이 곤란을 겪은 사건을 기사에 언급하여 이와 관련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

다. 이는 지하철이 지연된 사건을 근거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부활해야 한다는 언론사의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 방송’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가짜 뉴스의 유통 문제와 관련지어 다루고 있다. 이는 허위 정보가 순위에 오를 수 있다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 신문’과 (나)의 ‘△△ 신문’은 둘 다 기사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고 있다. 기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두 언론사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서비스가 폐지된 1년 후의 변화를 기사에서 다룬 문제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 장면 중에서 진행자가 던진 질문에 인터뷰 대상자가 대답한 내용의 일부를 화면에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진행자가 한 질문을 화면에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가 인터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발화를 할 때와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발화를 할 때 경쾌한 배경 음악을 넣어 분위기를 경쾌하게 연출하고 있다.
- ② 진행자가 최○○을 소개할 때 [장면 2]가 송출되어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인 최○○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물을 클로즈업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새 앨범의 발매를 준비하면서 더 좋은 모습, 색다른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최○○의 세 번째 발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장면 4]에 최○○이 노래를 녹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장면 1]과 [장면 3], [장면 6]에서 스튜디오의 배경에 프로그램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청자가 현재 자신이 시청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다.

05 대중문화의 주제적 향유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방송의 소재가 매번 비슷하게 선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댓글이다. 이는 방송 프

로그램들의 소재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꼬집고 있으나,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에 일관성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시청자가 자신이 가수의 팬클럽 일원임을 밝히며 가수의 앨범을 구입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다. 이는 최○○의 마지막 말인 “신곡 많이 들어 주시고 앨범의 다른 곡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신곡을 홍보하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③ ㉢은 앨범 판매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 댓글이다. 이는 대중 매체인 텔레비전 방송을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은 시청자가 방송에서 최○○의 신곡을 듣게 된 것과 관련해 방송의 신속성을 언급한 댓글이다. 이는 대중 매체인 텔레비전 방송이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신곡이라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 ⑤ ㉤은 시청자가 가수 최○○과 관련된 내용이 자신의 주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방송을 보고 또 애깃거리가 생겼음을 언급한 댓글이다. 이는 시청한 방송의 내용을 일상생활의 대화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매체 06

본문 143~148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의 ‘스승의 날 카드.hwp’는 휴대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문서 유형의 매체 자료를 송신한 것이다. 휴대 전화 메시지 사용자는 ㉔을 통해서 제공된 문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의 ‘직접 방문이 어려워서’에서 물리적 공간이 서로 다른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물리적 거리의 제약에 따라 소통 참여자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㉒에서는 꽃바구니의 시각적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으나 음성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③ ㉓의 ‘누리집에서 보니 가격이 39,900원인데, 깎아 주실 순 없나요?’는 대면 상황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이 함께 활용될 수 있겠으나, 휴대 전화 메시지의 비대면 상황에서 ㉓에 비언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㉕의 내용은 상대방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므로, 상호 작용에 제약이 있다거나 의사소통이 일방향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는 꽃을 주문하는 손님이 꽃집을 매개로 하여 중학교 때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의 글이다. 제삼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대신 전달해 주는 글이므로 매체 자료의 최종 수신자인 중학교 선생님께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신자의 생각과 느낌이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소통의 즉각성이 나타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는 졸업생과 중학교 때의 선생님이라는 개인 간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표현이다.

② [A]는 ‘꽃’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언어로 구체화한 것이다.

③ [A]는 꽃집의 카드에 인쇄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으로서, 인쇄물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④ ‘♡’ 모양의 사랑을 뜻하는 기호를 활용하여 수신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텔레비전 보도는 정보 수용자를 특정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광범위하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매체 정보 유통의 개방성이 높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텔레비전 보도는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즉시 수용자에게 전송되므로 인쇄 매체보다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빠르다.

② <보기>에 제시된 ‘정보 제공의 속도’는 정보 제공 후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속도를 가리킨다. 뉴스 프로그램의 사건 발생 시점과 보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나, 두 시점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정보 제공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정보 유통의 개방성이 높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정보 유통의 개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진술이다.

⑤ 다양한 인물의 인터뷰 영상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매체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쌍방향 소통으로 볼 수는 없다.

04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뉴스 보도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시민들의 분리배출에서만 찾지 않고 재활용품 용기 제조 기업에서도 찾고 있기는 하나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문제점은 다루지 않았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 직원의 인터뷰는 시민들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태를 보여 주기 위해서 다루어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매체 자료의 출처는 어디이며, 생산자는 누구인가?’에 관련되는 비판적 반응이다. 방송사와 보도 담당자들이 평소에 공신력 있는 보도를 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체 자료의 비판적 이해에 필요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② 기자는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실시 사실, 재활용품의 배출 실태 및 업체의 분류 현장을 보도하기 위해 현장을 취재하고 관련 인물들을 두루 인터뷰했다. 매체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 정부 관계자, 재활용품 수거 업체 직원, 전문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하여 보도하고 있다.

④ 재활용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보도에서는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의 재활용을 다루고 있고, 전반적인 재활용 분리배출은 다루고 있지 않다. 이로 볼 때, 보도의 초점이 전반적인 재활용 분리배출이 아니라는 반응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뉴스 보도에서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통하여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원료이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외국에서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투명 페트병 수거가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매체 자료 생산의 적절성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기자의 두 번째 말에서, 기자는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안내에 제시된 순서에 따르면,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하는 그림은 첫 번째가 되고, 페트병을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는 그림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㉞를 왼쪽의 첫 번째 그림과 바꾸어 제시하여도 적절한 분리배출 순서에는 맞지 않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㉞에서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배출하자는 의도를 살려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절하다.
- ② 포스터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도에서 지적인 일회용품 제조 단계의 문제는 홍보 자료의 성격상 다루기 곤란하다. 이를 고려하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QR 코드를 제시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㉞에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라는 문구를 넣어서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는 이유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의견이다.
- ④ ㉞와 같이 새로운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타내면 변경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도 시행 전과 후를 구별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자는 것은 적절한 의견이다.

매체 07

본문 149~154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1 매체 자료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를 보면 학생들이 영상 제작에 대한 역할을 분배하고 있다. 영상 촬영은 ‘수민’, 영상 편집은 ‘영수’, 배경 음악, 선배들의 재학 중 사진, 선생님들의 축하 멘트 영상 등의 자료 준비는 ‘철준’, 스토리보드 초안은 ‘민지’로 분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수민’의 두 번째 발언을 보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영상 편집은 편집 프로그램의 기능도 부족하고 편집 화면도 너무 작아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영상 편집의 단점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영상 편집의 장점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민지’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졸업 축하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졸업 축하 영상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 ④ ‘수민’의 두 번째 발언을 보면, 영상 촬영 기기는 스마트폰으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촬영 방법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
- ⑤ ‘민지’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졸업 축하 영상은 졸업식장에서 상영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졸업 축하 영상의 재생 시간이나 영상을 상영할 매체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S#2를 보면 화면을 둘로 분할하여 왼쪽 화면에는 선배들의 입학식 사진을 보여 주고, 오른쪽 화면에는 텅 빈 3학년 교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왼쪽 화면은 선배들의 과거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화면은 선배들이 졸업하는 현재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졸업하는 선배들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선배들의 발전된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1을 보면 2학년 후배 여학생이 3학년 교실의 의자에 앉

아, 선배들이 이 의자에 앉을 일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선배들이 졸업하는 상황임을 나타낸 것이다.

③ S#3을 보면 선배들의 입학식, 체육 대회, 학교 축제 사진과 함께 잔잔한 느낌의 연주곡을 배경 음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배들이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④ S#4를 보면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선생님들의 축하 멘트를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선생님들의 축하 멘트 내용을 선배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⑤ S#5를 보면 '선배님! 저희들이 열렬히 응원합니다!'라는 자막을 화면 중앙에 크게 넣고 있다. 이렇게 자막을 화면 하단이 아닌 중앙에 크게 넣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S#4는 선생님들이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장면으로, 산뜻한 느낌의 연주곡이 졸업 축하의 화면과 어울린다. 그런데 배경 음악을 무겁고 어두운 느낌의 연주곡으로 교체하면 오히려 화면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3에 선배들의 이어달리기 모습을 담은 동영상은 추가로 제시하면, 정지된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에 비해 선배들의 재학 시절 모습을 보다 생동감 있게 나타낼 수 있다.

② S#3에 선배들의 체형 학습 활동을 담은 사진들을 추가로 제시하면, 입학식, 체육 대회, 학교 축제와 더불어 선배들 재학 시절의 모습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③ S#3에 선배들의 재학 시절 사진을 보여 주는 중간에, 교정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을 계절 순서대로 삽입하면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⑤ S#5는 자막과 배경 음악을 볼 때 후배들이 선배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장면이므로, 아무도 없는 빈 교정의 쓸쓸한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화면을 후배들이 응원 도구를 들고 선배들의 졸업을 열렬히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으로 교체하면, 선배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04 매체 언어생활의 유의점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동아리 소개에 참여한 학생들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곳에 퍼뜨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선생님의 두 번째 발언을 보면, 학생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동아리 부장의 실수에 대해 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온라인 예절을 어긴 것이다.

② 여행 동아리 부장의 발언 중 질문에 답변을 하는 부분을 보면, 질문을 한 학생이 's.r진'과 '식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법과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온라인 예절을 어긴 것이다.

④ 여행 동아리 부장의 발언을 통해, 채팅에 참여한 학생이 여행 동아리 부장이 생산한 자료를 변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온라인 예절을 어긴 것이다.

⑤ 여행 동아리 부장의 발언 중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한 학생이 '중공'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방해해 주고 있다. 이는 신조어나 줄임말 사용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온라인 예절을 어긴 것이다.

05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여행 동아리 부장이 제시된 자료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자료의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행 동아리 부장은 동아리를 소개하던 도중 채팅 창을 통해 동영상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를 바로잡고 있다. 이는 채팅 창 확인을 통해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이다.

② 여행 동아리 부장은 채팅 창의 설문 기능을 통해 학생들이 바닷가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바닷가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있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바닷가에서의 동아리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③ 여행 동아리 부장은 자신이 직접 찍은 여행 동아리의 동영상을 제시하며 동아리의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⑤ 여행 동아리 부장은 동아리 소개 초반에 채팅 창에 동아리의 블로그 주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블로그에 방문하여 동아리 활동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②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어디에서나 쉽게 인터뷰 장면을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인터뷰 대상자와 대화하는 것은 온라인 방식과 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 ②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와 대면으로 진행되는 인터뷰는 모두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③ 인터뷰 내용을 사회자가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은 인터뷰 방식과 상관없이 사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 ④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2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사회자의 다섯 번째 발언을 보면, ○○ 시인에게 서재를 보여 줄 것을 사전에 부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시인도 자신의 서재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자가 ○○ 시인의 서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인터뷰 내용에 반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을 보면 ○○ 시인에게 시 낭송을 부탁하고 있으며, 교내 시화전에서 한 학생이 만든 시화를 화면에 띄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 ② 사회자의 여덟 번째 발언을 보면 설문 조사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질문이라고 하면서, 시를 잘 쓰는 방법을 ○○ 시인에게 묻고 있다.
- ③ 사회자의 열 번째 발언을 보면 채팅 창에 ○○ 시인의 ‘하루’라는 시에 대해 질문을 올린 학생을 지목하여 직접 시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고 있다.

⑤ ○○ 시인의 첫 번째 발언을 보면 학생들이 모두 학번과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이는 인터뷰 대상자가 익명의 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슬라이드 3>에 제시된 ‘시인의 서재’와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인터뷰 중반부에 나타나며, <슬라이드 4>에 제시된 ‘일상을 관찰하는 것’과 ‘시를 해석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인터뷰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슬라이드 3>과 <슬라이드 4>의 두 슬라이드의 배치는 인터뷰 진행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슬라이드 내의 내용 배치에 있어서 <슬라이드 3>은 인터뷰 진행 순서를 따르고 있으나, <슬라이드 4>는 인터뷰 진행 순서를 따르고 있지 않다. 인터뷰를 보면 ‘시를 해석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일상을 관찰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보다 나중에 나타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슬라이드 1>의 제목에 ○○ 시인을 온라인으로 만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나)가 온라인 인터뷰 상황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민들의 일상을 담아내는’이라는 말을 통해 시인이 주로 다루는 제재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슬라이드 2>는 (나)에서 사회자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인 약력과 창작 경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 시인의 시 낭송 동영상을 제시함으로써 시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슬라이드 3>은 (나)에서 시인이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말풍선과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슬라이드 4>는 (나)에서 시인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해석한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과 ‘일상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 깨달은 점을 슬라이드의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는 부분을 보면, 정보 생산자인 기자가 쓴 다른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기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수치가 230, ‘㉡’의 수치가 7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기사 내용에 대한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사를 최초로 입력한 시간과 최종 수정한 시간을 볼 때, 정보 생산자인 기자가 기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청소년들의 벽화 그림 동아리를 관련 기사로 제시한 것을 통해 정보 수용자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사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 학생 기자’가 댓글을 통해 ‘누군가’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기사의 본문을 보면 ‘폴꽃 앙상블’이 개교 때 결성되어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전통이 깊은 동아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폴꽃 앙상블’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아리명에 얽힌 일화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사의 제목을 보면 ‘폴꽃 앙상블’이 하는 일, 즉 주변 이웃을 위해 노래를 부른다는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부제를 통해 매주 노인 요양 시설을 찾아가서 노래를 부른다는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노인분들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기사의 본문에 ‘폴꽃 앙상블’이 노래 부르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시각 자료를 통해 동아리의 활동 모습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④ 기사의 본문에 ‘폴꽃 앙상블’의 동아리 부장 조□□ 학생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인터뷰 동영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이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폴꽃 앙상블’의 블로그 주소 링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폴꽃 앙상블’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체 09

본문 162~167쪽

- 01 ② 02 ③ 03 ③ 04 ①
05 ③

01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진행자가 기사를 부른 후 전환된 장면에서는 기자의 얼굴이 아니라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대상인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면 우측 하단에 수화로 보도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청각 장애인을 배려하고 있다.
- ③ 목성과 토성이 근접하는 현상을 보여 줄 때는 그래픽을 활용하여 시청자들이 쉽게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대근접 관측은 사실상 거의 800년 만’, ‘다음 대근접은 60년 후’ 등 보도 내용 중 핵심 내용은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발언 시 전문가가 설명하고 있는 대상인 목성과 토성의 모습을 화면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전문가가 설명하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02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철수’의 말을 통해 대근접에 대한 뉴스 보도는 대근접 현상이 이미 일어난 뒤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민희’의 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는 대근접 현상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텔레비전 뉴스 보도와 <보기>의 대화를 보면 대근접에 관한 뉴스 보도나 인터넷 생중계 모두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민희’의 말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본 ‘민희’는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본 ‘철수’와 달리 자신이 궁금한 것을 생중계를 진행하는 박사

님께 물어보았다. 이를 통해 텔레비전 뉴스 보도는 인터넷 생중계와 달리 진행 중에 시청자의 궁금증을 즉시 해소해 주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텔레비전 뉴스 보도는 해당 채널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생중계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에게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는 목성과 토성의 공전 궤도면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더라도 대근접 현상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다. 즉, 목성과 토성이 20년마다 한 번씩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대근접이라 할 만큼 공전 궤도면까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학생이 해결하고자 한 의문은 ‘목성과 토성의 다음 대근접이 일어나는 시점은 왜 20년 뒤가 아니라 60년 뒤일까?’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는 목성과 토성의 공전 궤도면의 기울기가 왜 서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 ② <보기>에서는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시 둘 사이의 실제 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 ④ <보기>에서는 목성과 토성이 20년마다 가까워지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다.
- ⑤ <보기>에서는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현상이 왜 태양에 가까우면 관측이 어려울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사회자가 박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대담 내용에 대한 청취자의 질문을 뽑아서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들어열개문을 설명할 때 박사가 사진 자료를 제시했으나,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청취자들이 볼 수 없으므로 사회자는 사진 속의 들어열개문을 말로 설명해 주고 있다.
- ③ 영상이나 자막을 통해 출연자와 프로그램명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사회자가 이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
- ④ 연속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사회자는 ‘지난 시간에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강수량 차이가 건축의 차이를 낳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라고 말하며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담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다.

⑤ 주로 듣기에 의존해야 하는 라디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취자들이 대담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자는 자신의 세 번째와 여덟 번째 발화, 그리고 마지막 발화에서 박사가 앞서 한 말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05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청취자 3’은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주된 건축 재료에 차이가 생긴 이유를 두 지역의 강수량의 차이로 설명하는 박사와는 달리 두 곳에 주로 분포해 있는 돌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청취자 1’은 동아시아에도 돌로 지은 건축물이 있고, 서유럽에도 나무로 지은 건축물이 있는데 왜 박사가 동아시아와 서유럽의 건축을 각각 목조 건축, 석조 건축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을 가진다고 해서 건축 재료가 건축의 특징과 관련 있다고 보는 박사의 관점을 부정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 ② ‘청취자 2’가 바둑을 동양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보는 박사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바둑에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박사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청취자 4’는 서유럽의 창 모양과 석조 건축의 특성을 관련 짓는 박사의 말에 근거가 부족함을 들어 그 타당성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청취자 5’가 대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자’를 사례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서유럽 건축보다 동아시아 건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박사의 견해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또한 박사가 서유럽 건축보다 동아시아 건축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매체 10

본문 168~174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③

0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진행자가 실시간으로 청취자 게시판의 청취자 반응을 확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반응을 반영하여 처음에 제시한 인터뷰 순서를 조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는 자신의 다섯 번째 발화에서 청취자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을 골라 작가에게 묻고 있다.
 ② 그림책을 읽어 주는 부분에서 잔잔한 배경 음악으로 책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③ 이 프로그램은 '보이는 라디오'로 카메라를 통해 진행자가 작가를 인터뷰하는 모습을 청취자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소리로만 전달되는 라디오 인터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⑤ 이 프로그램을 귀로만 듣고 있는 청취자들을 위해 작가가 그림책을 읽어 줄 때 목소리 연기를 하여 책 내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윤지의 나무」를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표현한 이야기로 보면 '윤지'는 부모, '나무'는 자녀로 볼 수 있다. '어떤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이 좋을까요?'에 대한 작가의 답변을 고려한다면, '윤지가 다른 친구들의 나무와 비교하며 자신의 나무에 조바심을 내는 모습은 아이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도대로만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이 그림책을 읽어 준 의도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윤지'가 자신의 나무를 빨리 키우기 위해 물을 많이 주고 흙을 많이 퍼 주긴 했지만 이것을 부모의 변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윤지'가 나무를 키우는 모습에서 부모가 자녀의 고집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빗대어질 만한 부분은 없다.

④ '윤지'가 다른 친구들의 나무보다 자신의 나무를 더 잘 키우고 싶어 한 것은 욕심을 부린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야기 속에 자녀의 욕심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다.

⑤ '윤지'가 유치원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나무가 원래 키가 작고 꽃이 늦게 피는 나무일 수 있다고 깨닫는 부분은 부모가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부모의 의도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자녀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이해한 것은 작가의 책 선정 이유와 거리가 멀다.

03 사회적 상호 작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새침이'는 방송 내용과 관련하여 책을 읽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을 표현하고 있으나, '주니'는 의문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니'는 방송에서 작가의 책 제목이나 출판사 등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으나, '독서광'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주니'는 부모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직접 읽어 주는 것이 좋다는 작가의 말을 통해 그동안 스마트 펜을 애용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새침이'는 작가의 말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독서광'은 자신의 아이가 책을 선정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새침이'는 책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 줄 때보다 직접 읽어 줄 때 자신의 아이가 더 집중했던 경험을 기준으로 방송 내용에 반응하고 있다.
 ⑤ '새침이'는 방송 내용을 예전에 읽은 책의 내용과 관련지으며 의문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독서광'의 경우에는 방송 내용을 자신의 독서 경험과 관련짓고 있지 않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도박에 빠지는 것을, ㉡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 문제 행위가 표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도박에 빠지는 것이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며 광고 수용자의 공포감을 자극하고 있다. 반면 ㉡과 ㉢은 수용자의 공포감을 자극했다고 볼 수 없다.

③ ㉠과 ㉡은 광고의 수용자를 ‘당신’이라 칭하여 불특정 다수가 아닌 광고를 보고 있는 수용자 개인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④ ㉢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일상화합시다.’에서 청유문을, ㉣은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보세요.’라는 표현에서 명령문을 통해 바람직한 행위를 권고하고 있다.

⑤ ㉠은 ‘빠지는 건 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도박 칩으로 만든 맨홀 뚜껑과 구멍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도박에 빠지는 것’은 ‘맨홀 구멍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은유를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가 ‘당신을 지키는 ‘히어로’라는 은유가 망토를 두른 영웅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은 ‘한 번 쓰고 버리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찌그러진 일회용 종이컵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용 불안에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에 빗대면서 이러한 은유를 찌그러진 일회용 종이컵에 그려진 이력서로 시각적 이미지화하고 있다.

05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명령형 문장이 쓰이지 않았고, ‘당신’이란 표현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수용자 개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문제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부각하지 않고 한 줄 서기를 실천하면 우리 모두의 점심시간이 여유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바람직한 행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당신 양심에 빨간 줄로 새겨집니다.’라는 표현은 문제 행위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부각한 것이다.
- ② 명령형 문장을 쓰지 않았고 바람직한 행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기는 했지만, 수용자 개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 ④ ‘한 줄 안 서는 당신이 끌어내린 우리들의 공공 예절 수준’에서 문제 행위가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형 문장을 쓰지 않았고 바람직한 행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부각하기는 했지만, 수용자 개인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매체 11

본문 175~179쪽

- 01 ② 02 ① 03 ③ 04 ⑤
- 05 ①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 영상 촬영 후의 편집 일정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이 답사 일정에 따라 영상 촬영의 순서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영상 촬영의 순서가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학생 3’이 영상에 어울릴 만한 배경 음악을 삽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영상에 어울릴 만한 배경 음악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학생 3’이 답사 당일 아침의 모습을 시작 장면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학생 2’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3’이 마지막 장면에는 자막으로 답사에 참여한 동아리 친구들의 이름과 후기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영상의 시작 장면과 마무리 장면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학생 2’는 그림과 꽃들은 근접 촬영할 것을, ‘학생 3’은 수원 화성이나 용건릉을 답사할 때는 동선과 중요한 유적지가 잘 담길 수 있도록 카메라가 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기법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촬영 대상에 적합한 카메라 촬영 기법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를 보면 답사 당일의 아침 풍경을 영상의 시작으로 하여 답사를 시작하는 설렘이 잘 표현되도록 영상을 제작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장면 1을 보면 ‘2022년 답사 영상’이라는 영상의 제목을 자막으로 제시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답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설명을 자막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장면 2와 5의 경우, (가)를 보면 동선과 유적지가 잘 담기도록 카메라가 학생들을 따라가며 촬영하려 함을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주요 유적지에 대한 소개는 내레이션으로 제시하

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장면 3과 6의 경우, (가)를 보면 그림과 꽃이 생생하게 보이도록 근접 촬영하려 함을 알 수 있고, (나)를 보면 그림과 꽃의 소개는 자막으로 제시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와 (나)를 보면, 장면 4에서는 점심 식사 장면을 통해 답사에 참여한 동아리원의 모습과 추억을 담아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와 (나)를 보면, 장면 1~7의 순서는 답사 일정에 따라 배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한국 건축의 특징을 보여 주기 위해 조선 시대 궁궐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시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면 2]를 보면, 시청자가 채 분화와 실 분화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각각의 개념을 표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장면 3]을 보면, 채 분화의 특성을 시청자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소수 서원의 영상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장면 6]을 보면, 시청자가 경계가 불분명한 완충 공간인 마루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장면 6]과 [장면 8]을 보면 '상호 관입적 공간'이 낯선 용어이므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 한국 건축과 서양 건축에 대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장면 8]을 보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건축물에서도 내부에 있으면서도 외부와 닿아 있는 중간 영역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양 건축물에서도 공간 상호 간의 이질적 성격을 약화하는 연결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상호 관입적 공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독립된 건물이 군(群)을 형성하는 군집성은 서양 건축물의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내부를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분할성은 서양 건축물의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개개 건물이 다른 건물과 분리되는 독립성은 서양 건축물

의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여러 채의 건물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다양성은 서양 건축물의 특징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장면 4]를 보면, 안채에 안방과 건넌방을 배치한 것은 실 분화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장면 4]와 [장면 5]를 보면, 사랑채와 안채를 각각 분리하여 배치한 것은 유교 사상이 채 분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③ [장면 4]와 [장면 5]를 보면, 작은 사랑채를 사랑채에 비해 작은 규모로 배치한 것은 상하 관계에 따른 공간의 위계성을 보여 줌을 알 수 있다.

④ [장면 4]와 [장면 6]을 보면, 사랑채의 마루, 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은 사랑채와 마루, 마당의 유기적인 공간 관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⑤ [장면 4]와 [장면 6]을 보면, 안채, 안채와 사랑채 사이 마당 등의 공간이 겹쳐 보이도록 배치하여 개별 건물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깊이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NAL 실전모의고사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깨우는 실전 훈련

최다 문항 FULL 모의고사 시리즈

매체 12

본문 180~185쪽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학생 3’은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대하여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권에 대해 다루는 것은 발표를 듣는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인물과 연관 지어서 주권에 대해 다루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자신이 읽었던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선 말 국제 정세에 대해 다뤄 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학생 2’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카드 뉴스의 예시를 보여 주고 있다.

⑤ ‘학생 4’는 안용복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을 언급하며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슬라이드 3’에 돛토리 번 답변서 중의 일부가 우리말로 풀어져 있으나, 그 내용이 인물 간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슬라이드 1’에서는 독도 사진과 안용복의 활동을 연관 지어 제시하고 있다.

② ‘슬라이드 2’에서는 1693년에 안용복이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여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슬라이드 2~4’에는 역사적 사건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을 하단에 텍스트로 제시하고 있다.

⑤ ‘슬라이드 3’과 ‘슬라이드 4’에서는 역사적 사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우리말로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신문 기사는 카드 뉴스와 달리, 표제와 부제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보기>는 ‘울릉도에서 만난 안용복’을 표제로 제시하

였으며, ‘안용복 기념관, 안용복 선생 및 일본의 독도 침탈 관련 자료 전시’를 부제로 제시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와 (나)는 모두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② <보기>와 (나)는 모두 사진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보기>나 (나)의 사진 속에 객관적 수치가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③ (나)에서 문자 언어 외에도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음성 언어와 영상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④ <보기>와 (나)는 모두 특정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고 있거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있지는 않다.

04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보여 줄 수 있으나,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들이 기사의 잘못된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은 기사에 문자 언어 외에도 그림 이미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㉒은 입력 시간과 수정 시간을 드러내어 기사가 수정되어 게시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㉓은 하이퍼링크로,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도 추가로 읽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⑤ ㉔은 ‘양치질’이라는 화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추가로 읽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05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와 ㉒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는 기사의 내용을 받아들여 잘못된 양치질은 치아 손상이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㉒는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기사가 제공되면 기사 내용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 ㉒는 기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치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별도로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㉒와 ㉒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자료 제공이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매체 13

본문 186~191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①

0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B]를 통해 '김 대표'가 채팅 창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대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멍이'가 채팅에서 한 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실시간 인터뷰를 이어 나가고 있으므로 특정 사람을 선정하여 일대일 쌍방향 소통을 이어 나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진행자가 시청자인 '삼크미'와 '달콤청굴'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에서 진행자가 "지금 갑자기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현재 1,0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인터뷰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D]에서 진행자가 채팅 대화를 보며 눈에 띄는 질문이 있다고 말하면서 '김 대표'에게 질문을 하는 부분을 통해 인터뷰 진행 중에 채팅 창 내용을 반영해 질문을 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에서 '김 대표'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과 실시간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시청자가 '김 대표', 진행자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같은 시간에 만나서 상호 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언어생활의 유의점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⑥는 인터뷰 중 '김 대표'의 말을 듣고 '신뢰'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 반응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방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에서 '달콤청굴'이 초성자만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였고, '민트빛'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초성자만 사용할 경우 대화 참여자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

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④는 대화의 흐름과 관계없는 '△△산지 사과'와 관련된 말을 반복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

④ ④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 창을 통해 대화 참여자의 거주지를 언급하며 개인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는 대화 참여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⑤ ⑤는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김 대표'의 인터뷰 대답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한 것으로,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03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댓글을 통해 기사 내용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정보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신뢰도는 정보가 얼마나 믿을 만하기에 관한 것으로 출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자의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어 수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문자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라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해당 정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추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④ 방송 타이틀 화면 이미지, 프로그램 예고편 영상, 문자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⑤ 기사의 입력과 수정 날짜, 시간까지 제시되어 있어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하이퍼링크로 연결된 것은 (가)의 신문 기사로, (나)의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기사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전체 공개 글'이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글쓴이 자신이 본 오디션 프로그램 방송의 인상적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언급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부엉이'가 댓글에 대해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답을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은 '#오디션, #기회, #꿈'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를 통해 제품 판매 업체는 제품 판매의 대상이 되는 목표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삽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의 기사문 아래 제시된 토종꿀 광고는 판매 업체에서 해당 인터넷 신문을 읽는 독자를 제품 판매를 위해 설정한 목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삽입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제품 판매 업체가 제품 판매를 위해 설정한 목표 고객이지, 신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배너 광고를 설정해 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토종꿀 광고가 같은 창 의 기사 바로 아래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다른 창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④ 2병에 99,000원이라는 제품의 가격을 광고 전면에서 제시한 것은 할인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시간의 제약 없이 화면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의 특징을 활용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⑤ 인기 가수가 광고하는 이미지를 통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수능 감(感)잡기

감을 잡으면 수능이 두렵지 않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는 학습 전략

매체 14

본문 192~197쪽

- 01 ⑤ 02 ② 03 ③ 04 ①
- 05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라디오 광고는 생산된 정보를 성우가 내레이션을 통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매체이고, 포스터 광고는 특정 장소에 부착하여 수용자에게 생산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이다. (가)와 (나)는 모두 수용자가 정보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성우의 내레이션과 노래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나)는 문자와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오른쪽 아래에 QR 코드를 제공하여 관련 누리집으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 ③ (가)는 축제의 내용과 관련된 노래를 활용하여, (나)는 축제 현장 모습의 그림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머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머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피부에 좋다는 우수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우수성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머드 축제를 한여름 밤의 꿈에 비유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환상적인 꿈과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수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 ③ 유명 스타들도 즐겨 찾는다라는 표현과 케이-팝 대표 가수 콘서트 가 열린다는 정보를 제시하여 수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표면적으로 머드의 개념이나 축제가 열리는 기간 및 장소, 축제의 내용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머드'라는 유사한 소리를 이용한 인상적인 표현을 제시하여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댓글을 통해 기업의 입장을 나타낸 기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나)에서는 편슈머 제품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문제를 진단하며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나)는 소비자의 관심과 기업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언급하고 있다.

② (가)는 라면 봉지 모양의 침구 세트, 문구 제품 모양의 사탕과 같이 편슈머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문자로 설명하며 정보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고, (나)는 음료수병 모양을 본뜬 가방, 동물 모양의 팩 등과 같은 편슈머 제품의 사례를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여 정보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이들이 본문의 정보에 대해 입력과 수정의 주체가 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표제와 부제를 통해, (나)는 첫 번째 카드의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정보를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정보를 생산한 사람의 소속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04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카드 1]에 활용된 이미지는 재미를 추구하는 상품을 들고 웃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를 통해 가짜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카드 2]에서 ◇◇ 산업 구조 변화 연구원인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편슈머의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카드 3]에서 소비자의 인터뷰를 활용하여 편슈머 제품을 구입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카드 2]와 [카드 3]의 제목이 각각 ‘~뭐지?’, ‘~어떨까?’ 등과 같이 물음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은 이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카드 1]에서 ‘가짜비’, [카드 2]에서 ‘편슈머’와 ‘편슈머 마케팅’, [카드 3]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 등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편슈머 마케팅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의 ‘지우’가 마지막 발화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할 때는 문자 옆에 이를 나타내는 시각적인 기호를 추가해 위험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㉔에는 주의를 의미하는 시각 기호가 추가되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의 ‘한신’이 각각 카드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미’와 ‘안전 및 위험’의 요소를 중심으로 제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기>의 ‘지우’가 첫 번째 발화에서 제안한 비식품인데 식품 디자인으로 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의 ‘유담’이 마지막 발화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프의 제목과 출처를 제시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지우’가 마지막 발화에서 말한 것처럼 인물 캐릭터에 말풍선을 넣어서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통합 01

본문 198~201쪽

01 ③

02 ②

03 ⑤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틸팅(tilting)은 높은 피사체의 웅장함을 보여 주거나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장면 3에서 엘리베이터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1층에서 7층까지 변하는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의 숫자를 보여 줘야 하므로 층 표시기를 클로즈업 샷(close up shot) 기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패닝(panning)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거나 가로로 긴 피사체를 자세히 보여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가로로 긴 형태의 회사 전경을 자세히 촬영하기 위해 패닝 기법으로 촬영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②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extreme close up shot)은 피사체의 한 부분만을 극도로 확대하여 촬영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탄 주인공이 7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기법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손과 엘리베이터 버튼을 극도로 확대하여 촬영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④ 롱 샷(long shot)은 배경과 인물이 시야에 같이 들어와 한 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부산한 사무실의 분위기를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롱 샷 기법으로 촬영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⑤ 주밍(zooming)은 렌즈의 줌 기능을 활용하여 피사체를 크게 당기거나 밀어내는 기법으로 시선 집중을 유도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사무실의 많은 사람들을 보여 주다가 주인공을 향해 손을 흔드는 주인공의 선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주밍 기법으로 촬영하자는 의견은 적절하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상’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인터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세진’은 아프리카에 있는 감독과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진

행했다는 점을 놀라워하고 있고, 인터뷰하는 동안 감독에게 했던 자신의 말 중에 감독이 불쾌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다가 감독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세진’의 발언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매체 언어가 사회적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문영’은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쌍방향 소통 과정에서 전달 내용이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④ ‘세진’은 온라인 인터뷰 도중에 감독이 직접 스케치한 이미지를 보여 줘서 이해가 잘 되었다며 여러 매체가 상호 결합된 형태로 운용되었을 때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은상’은 여러 가지 매체가 상호 결합된 형태로 운용되는 것과 관련된 매체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은상’과 ‘문영’은 매체를 활용한 간접적 소통 상황에서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은상’은 감독의 목소리나 표정이 생생해서 감독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으며, ‘문영’은 자신의 행동과 목소리에서 감독을 좋아하는 게 표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03 보조사 쓰임 탐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㉞에서 ‘요’는 종결 어미 ‘-르게’ 뒤에 붙어 있다. ‘-르게’는 구어체로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상대에 대한 존대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요’는 명사 ‘인사’에 결합되어 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라는 공적인 담화 상황에서 상대를 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에서 ‘요’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라서’ 뒤에 붙어 있다.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이다.

③ ㉡에서는 부사 ‘일단’에 ‘요’가 붙어 있다. 또한 ‘삼니다’에는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브니다’가 결합되어 있다.

④ ㉣에서 ‘요’는 보조사 ‘은’ 뒤와,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아’ 뒤에 붙어 있다.

통합 02

본문 202~205쪽

01 ②

02 ④

03 ③

01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학생회장의 두 번째 발언을 보면, 반말과 익살스러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홍보부장에게 휴대 전화 메신저이더라도 공식적인 학생 회의 중이니 예의를 갖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의를 갖춰 달라는 요구는 사용 중인 휴대 전화 메신저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학생 회의가 공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회장은 첫 번째 발언에서 다들 온라인 회의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은 후, 세 번째 발언에서 ‘우산 대여 서비스’ 공약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한 뒤, 회의 안전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총무부장은 두 번째 발언에서 파일 공유가 쉬운 휴대 전화 메신저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202×학년도 학생회 예산 파일을 공유하고 있다.
- ④ 총무부장은 다섯 번째 발언에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 시청의 무인 자전거 대여와 관련된 홍보 동영상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⑤ 홍보부장은 여섯 번째 발언에서 직전에 총무부장이 활용한 하이퍼링크에 대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총무부장이 자료 공유가 용이한 휴대 전화 메신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홍보부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개인 사정으로 아침 시간에 반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체 반납 시간은 <보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는 사랑 나눔 우산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비 오는 날 우산 쓰는 그림이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는 건의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학생회 SNS가 QR 코드 형태로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우산 대여 가능 시간을 일과 중으로 확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는 운영 장소를 글 대신 약도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문법 요소의 활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상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학생회장은 총무부장에게, 우산 구입에 쓸 학교 예산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회의’라는 공적 담화 상황이므로 ‘준비되었는지요?’에서 보듯이 상대 높임법(해요체)과 주체 높임법을 쓰고 있다.
- ② ‘못 부정문’은 주체가 행위의 의지를 가졌으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그 행위를 실현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에서는 ‘갑자기’ 비가 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못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사동문은 어떤 참여자(사동주)가 다른 참여자(피사동주)에게 영향을 미쳐 어떤 행위를 일으킴을 표현한 문장이다. ㉠에서 우산을 가져가는 주체는 학생들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우산을 ‘가져가게 하는’ 주체는 ‘학생회’이다.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을 통해, 우산을 가져가는 주체와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주체가 구분되고 있다.
- ⑤ ㉠에서 ‘거기’는 앞서 나온 ‘학생회실’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01 ④

02 ④

03 ④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문 교수’가 시청자 ‘월계관은 나의 것’이 올린 의견 중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 주는 발화로, 방송 참여자인 ‘진행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이다. 또한 간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포스터에 사용된 식물이 올리브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발화자인 ‘진행자’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로, 방송의 주제가 ‘올림픽 포스터에 숨겨진 상징’임을 알리고 있다.
- ② ㉒은 발화자인 ‘문 교수’가 방송 참여자인 ‘진행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로, 제시한 포스터가 어떤 나라의 올림픽 포스터인지 맞춰 보겠느냐고 묻고 있다.
- ③ ㉓은 발화자인 ‘진행자’가 카메라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발화로, 자료를 크게 촬영해 달라며 화면 구성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 ⑤ ㉕은 발화자인 ‘진행자’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로, 다른 올림픽 포스터에 숨겨진 상징을 찾아본 후 시청자 게시판에서 그 의미를 공유해 보라며 시청자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02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진행자’가 방송 중에 ‘월계관은 나의 것’이 올린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정하는 등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방송 중에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에서는 방송 중에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라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테네 유학생’이 올린 글의 내용은 ‘진행자’가 방송 중에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새로운 내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아테네 유학생’이 올린 글 자체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월계관은 나의 것’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시청자는 아테네 올림픽 포스터 안의 상징이 월계관이라고 했지만, 이후 ‘문

교수’가 월계관이 아니라 올리브 관이라고 정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생방송 중에 인터넷에 제시된 개인의 의견 중에는 사실과 달라 검증이 필요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유학생’과 아테네가 아닌 곳에 있는 ‘그리스 사랑’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생방송 중에는 공간적 제약을 넘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③ ‘척척박사’가 ‘문 교수’의 질문 수준이 떨어진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 사랑’이 기분이 상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생방송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척척박사’, ‘그리스 사랑’처럼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생방송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3 감탄사의 의미와 쓰임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 ㉔는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내는 소리로 봐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문 교수’의 말을 받아들이는 내용으므로, 이 감탄사에 화자의 뉘우침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뉘우침을 담고 있는 감탄사라고 한다면 <보기>의 감정 감탄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헛되게 보냈구나.’와 같은 경우이다. ‘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에서와 같이 ‘아’는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경우도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떤 나라의 올림픽 포스터인지 맞춰 보라는 ‘문 교수’의 요청에 대해 ‘진행자’가 동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지 감탄사’에 해당한다.
- ② ‘진행자’와 시청자들이 정답을 맞히는 반응에 대해 ‘문 교수’가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감정 감탄사’에 해당한다.
- ③ ㉑의 ‘어’는 감탄사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이다. ‘문 교수’가 ‘포스터 상단의 파란색 네모 안에 그려진 올리브 관’을 말하자 ‘진행자’는 당황스러워하며 ‘어’라고 한다. 맥락으로 보아 ‘진행자’는 그것을 ‘월계관’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청자 대화 창을 확인한 내용도 ‘문 교수’에게 알려 주고 있다.
- ⑤ ‘에’는 감탄사로서, 말을 시작하거나 말하기를 망설일 때, 또는 말하는 도중에 뒷말이 곧 나오지 아닐 때 내는 군소리

이다. ‘문 교수’의 발언으로 보아 말하는 도중에 뒷말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 특별한 뜻 없이 내는 소리로 볼 수 있다.

통합 04

본문 209~211쪽

01 ④

02 ④

03 ③

01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에서는 텔레비전 인터뷰가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시청자가 느끼는 실재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그 다양한 요소에는 ‘질문과 대답 이외에도 인터뷰 장소에서의 화면 구성, 공간 구성, 영상이나 음향의 삽입 등’이 있다. [장면 5]는 인터뷰 대상자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들의 보행을 돕는 활동에 관한 영상을 삽입한 것으로서, 시청자는 이 영상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장소의 이동 없이 영상을 삽입한 경우이므로, 인터뷰의 내용에 따라 인터뷰의 공간을 이동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1]과 [장면 4]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를 확대 촬영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 ② [장면 2]는 차량 주행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동작을 보여 주는 삽입 영상이다. 시청자는 삽입 영상에 나온 인터뷰 대상자의 모습을 봄으로써 인터뷰 대상자의 구체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③ [장면 3]에서는 인터뷰 대상자를 가운데 두고 인터뷰 진행자 2명이 좌우에서 있음으로써 화면 가운데의 인터뷰 대상자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 ⑤ <보기>에서 텔레비전 인터뷰는 영상의 삽입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장면 6]은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된 어린이들의 편지를 영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터뷰 대상자가 한 말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02 매체 자료의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④는 ‘진행자 1’이 들은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내용을 ‘그런 어려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뷰 진행자가 종합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①: ‘진행자 1’은 인터뷰 대상자의 화려한 외양적 특징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 대상자의 제복용 모자와 셔츠의 색깔에 대한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② ②: ‘진행자 2’가 인터뷰 대상자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③: ‘(크게 웃으며)’는 인터뷰 대상자가 시연해 준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진행자 1’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⑤: ‘진행자 2’가 “한 편의 드라마 같은데요”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터뷰 대상자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인상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말씀을 올리다.’와 같이 ‘말씀’은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룰 때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에서 ‘말씀’은 객체인 ‘김현수’가 한 말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지 진행자가 자신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말이다. ㉡에서 목적어의 지시 대상인 ‘김현수’를 높이기 위하여 동사 ‘모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님’은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의존 명사이다. ㉢에서 의존 명사 ‘님’을 인명인 ‘김현수’ 뒤에 써 그 사람을 높여 이르고 있다.
- ④ ‘-시-’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에서 ‘해 주시고’와 ‘건강하시기’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⑤ ‘-니다’는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에서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01 ①

02 ④

03 ⑤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기사의 논지는 청색광의 유해성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청색광을 배출하는 전자 기기 사용 습관이 우리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표제는 ‘청색광의 유해성 논란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므로 청색광의 유해성 논란과 그러한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히는 것이 기사의 주요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표제가 기사의 논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청색광이 유해하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사진 1>에서 청색광의 유해성을 강조하여 보도한 그동안의 언론 기사들을 나열해서 보여 주고 있다.
- ③ 청색광이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사진 2>에서 미국 안과 학회의 청색광에 대한 연구 결과가 실린 학술지의 일부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④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청색광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양쪽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 ⑤ 예상 독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늦은 밤까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습관의 위험성을 언급한 뒤, 불가피하게 전자 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의할 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02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윤성’은 인쇄 비용을 절감하고 교지 배부의 번거로움을 덜 수도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철민’의 경우는 기사에 대한 반응을 일일이 물어보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둘 모두 인쇄 비용 및 배부의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희’는 요즘 학생들이 인쇄물보다는 디지털 매체로 읽는 것을 선호하므로 디지털 교지가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② ‘철민’은 <사진 2>에다 링크를 걸어서 직접 학술지 사이트로 접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③ ‘윤성’은 독자가 기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다희’는 댓글을 통해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⑤ ‘다희’는 기사에 대한 반응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철민’은 수정해야 할 것들이 생기면 즉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교지의 장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㉞에서는 부사격 조사인 ‘보다’를 사용해 전자 기기 사용자의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피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행위의 주체를 숨기고자 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㉞에서는 피동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② ㉞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바가 없으며, 청색광의 개념 역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③ ㉞에서는 청색광 자체의 유해성과 전자 기기 사용자의 습관을 안은문장을 활용하여 연결 짓고 있지 않다.
- ④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 부사의 예로 ‘그래서’를 들 수 있다. ㉞에서는 청색광 자체가 유해한 이유를 이러한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 부사를 활용하여 밝히지 않았다.

통합 06

본문 215~217쪽

01 ②

02 ②

03 ①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텔레비전 뉴스의 일부로 진행자가 진행을 하고, 지진 발생 현장에 나간 기자가 시민을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이고, (나)는 휴대 전화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에서도 기자의 물음에 대해 시민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지진 발생 위치, 지진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한 수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가)는 [속보] ○○시 진도 3.3 지진 발생', [속보] ○○시 지진 발생 현장', [속보] 현재 여진 지속'을 자막을 통해 제시하고, (나)는 우는 표정의 이모티콘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내용의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가)는 지진 대피소에서 시민과의 인터뷰를, (나)는 편의점 지진 영상과 화분이 깨진 모습의 사진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 상황에서 규범적 언어 표현을 하고 있고, (나)는 친구들 사이의 대화 상황이라는 사적 맥락에서 'ㅇㅋ' 등과 같이 비규범적 언어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02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B]는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박 기자가 현장의 장면을 보며 주며 상황을 묘사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진행자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불특정 다수인 뉴스 시청자를 대상으로 속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③ [C]에서 박 기자와 시민은 현장 대피소에서 마주 보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④ [D]에서 박 기자와 진행자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통신 기술

을 통해 소통을 하던 중에 화면이 흔들리다 꺼지면서 연결이 끊어져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⑤ [E]에서 진행자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김 교수와 전화를 통해 음성 언어만으로 소통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지진의 진동 감지에 대한 사실을 알린 주체가 누구인지 직접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알려졌습니다'는 '-어지다'를 활용한 피동 표현이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지진의 진동 감지에 대한 사실을 알린 주체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현장에서는 테이블이 흔들려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나오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는 지진 발생 당시의 현장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문장은 연결 어미 '-어'에 의해 이어져 있고, 관형사절이 안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고 있-'은 동작상 중에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자고 있었는데'에서 이를 활용하여 지진 발생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지 않-'은 부정 표현이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두 지진의 피해 정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시청자 여러분께'에서 '에게'의 높임인 부사격 조사 '께', '알려 드리겠습니다'에서 '주다'의 높임인 보조 용언 '드리다'를 활용하여 객체인 '시청자 여러분'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학습

1 회

본문 220~231쪽

-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①

01 어문 규정과 언어 자료 탐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II의 ㉗의 [붙임]에서는 ‘ㄷ’으로 끝나는 말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할 때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먼저 ‘ㄷ’과 ‘히’의 ‘ㅎ’이 [ㅌ]으로 축약되는데, 이는 ‘ㅌ’ 뒤에 ‘ㅣ’가 결합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ㅌ]이 [ㅊ]이 된다. 그러므로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할 때에는 먼저 ‘ㅎ’이 ‘ㅌ’으로 교체되어 ‘티’를 이룬 다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밭일’은 ‘밭’과 ‘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반닐]로 발음한다. I에서는 끝소리가 잇몸소리(치조음)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밭일’의 ‘일’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다. ‘밭’과 ‘일’이 결합할 때 ‘ㄷ’이 첨가되어, 뒤 음절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② ‘벼훤이’는 ‘벼’에 ‘훤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훤이’는 ‘훤다’의 어간 ‘훤-’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로, II의 ㉗에 따라 [훤치]로 발음된다.

④ I과 II의 ㉗, [해설] 등으로 보아 구개음화는 치조음인 ‘ㄷ, ㅌ’이 모음 ‘ㅣ’의 조음 위치에 가까워져 경구개음 ‘ㅊ, ㅌ’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음의 조음 위치가 변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구개음화로 인해 바뀐 소리는 II의 ㉗에 따라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㉘의 “ㄷ, ㅌ’이 ‘ㅊ, ㅌ’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에서 보듯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02 파생어 형성 제약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군-’은 명사에 붙어 ‘쓸데없는’, ‘덧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이 접사는 파생 접사가 특정한 품사와 결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지만, ‘군기침, 군말, 군식구,

군소리/군입, 군잎, 군잎, 군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파생 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놀이, 해돋이, 길잡이’에서 보듯이 접사 ‘-이’는 어근이 자음으로 끝날 때 결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보기>의 ‘먹이’의 접미사 ‘-이’와 같이, 파생 접사가 어근의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의 예로 들 수 있다.

② ‘참깨, 참꽃, 참뚝’에서 보듯이 접사 ‘참-’은 명사 앞에 붙어 ‘진짜’ 또는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 ‘먹을 수 있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③ ㉘에 따르면, ‘깊이’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어근 ‘깊-’에 접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대비를 이루는 어근 ‘얕-’에는 이 접사가 결합하지 못하여 *‘얕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높이, 넓이’는,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파생되었다. 이러한 파생이 성립하고 *‘낮이, *좁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어근 ‘높-, 넓-’만이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접사 ‘-기’도 이러한 어근 ‘높-, 넓-’에 결합하여 *‘높기, *넓기’와 같은 파생어를 만들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단어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㉘의 예로 볼 수 있다.

03 사동 피동 표현 탐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알다’의 사동사 ‘알리다’에 의한 사동문이다. 이 문장은 ‘형은 그 소식을 가족들이 알게 했다.’와 같이 ‘-게 하다’가 결합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문장에서는 파생적 사동문에서 ‘-에게’ 형태로 나타나는 피사동주에 주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 ㉡은 사동사 ‘남기다’에 의한 사동문이다. 이를 통사적 사동으로 바꾼, *‘그는 많은 유산을 자손들이 남게 했다.’ 혹은 *‘그는 자손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게 했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가족들은 그 소식을 알았다.’와 같이 된다.

③ ㉠의 ‘알리다’는 ‘알다’에, ㉡의 ‘올리다’는 ‘올다’에 각각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의 ‘남기다’는 ‘남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사동사이다. ㉢의 ‘ 옮겨지다’는 ‘올다’에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옮기다’에

피동의 뜻을 가진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④ ㉔에서 ‘울리다’의 주체는 부사어에 있는 ‘동생’이고, ㉕에서 ‘뿌리다’의 주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지다’는 보조 동사로 쓰일 때, 용언 뒤에서 ‘-아지다/-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통사적 피동문을 만든다.

04 담화의 이해

답 ⑥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담화 맥락으로 보아 ㉔는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지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㉕ 역시 상대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고 있으며, ㉖가 제안이다. ㉗는 의문문으로 표현된 문장이지만 어떠한 행동 따위를 같이 할 것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청유의 의도를 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의 ‘이거’와 ㉕의 ‘그거’는 모두 ‘형광펜’을 가리키고 있다.

② 담화 맥락으로 보아 ㉔에서 ‘매점.’은, ‘쉬는 시간에 나는 매점(에) 갔다 왔다.’ 정도로 재구성할 수 있는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모두 생략하고 ‘가영’의 ‘어디’에 대한 답만을 말한 것이다. ㉕ 역시 ‘너는 이번 주말에 뭐 해?’ 정도로 재구성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어만을 말하고 있다.

③ ㉖는 상대방에게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 문문이고, ㉗는 상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④ ㉔의 ‘그런데’, ㉕의 ‘그럼(그러면)’의 준말’은 접속 부사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는 접속 표현에 해당한다.

05 중세 국어 객체 높임법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목적어 ‘부터’(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형태임.)를 높이고 있고, ㉕은 목적어 ‘부텃 뵤샤 ㄱㄹ치샤믈’을 높이고 있다. ‘ㄱㄹ치샤믈’은 ‘ㄱㄹ치샤’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한 형태로, ‘부터’가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ㄱㄹ치샤’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터’이고(‘부텃’은 ‘부터’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형태로, 이때의 ‘ㅅ’은 의미상으로 주어임을 나타냄.), ‘阿難’은 ‘부터’가 보이신 ‘ㄱㄹ치샤’를 듣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공경하다’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습-’과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사형으로, 이어지는 명사 ‘전츰’를 수식하고 있다.

② ㉕이 높이고 있는 대상은 ‘죽은 보살’이다. 중세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높임의 대상이 생략되어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현되었다.

③ ㉔에서 ‘부텃 뵤샤 ㄱㄹ치샤믈’은 높임 대상인 ‘부터’와 관련된 일이므로 간접적 높임임을 알 수 있다.

⑤ ㉔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부터’이고 주어는 ‘우리’이다. ㉕에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죽은 보살’이고 주어는 ‘大瞿曇이’이다. (참고로 ㉔에서 ‘대구담’은 ‘죽은 보살(소구담)’의 스승이므로 실제로는 주어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죽은 보살’이 석가모니의 조상이 되므로 화자는 ‘죽은 보살’을 더 높이고 있다.) ㉕의 주어는 ‘阿難이’이고 그 대상인 ‘부텃 뵤샤 ㄱㄹ치샤믈’은 ‘부터’와 관련된 일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부터’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주어보다 높음을 객체 높임을 통해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2문단에서 ‘〈상상의 날개〉’는 여러분의 자기 계발을 적극적으로 도와 여러분이 광고계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제의 수상과 광고 분야 진출의 증가를 보여 주는 [A]는, 동아리 활동이 자기 계발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3문단에서는 2차 선발할 때 1차 선발을 통과한 지원자가 제출한 광고를 평가하는데, 이때 제출한 광고의 평가 기준이 [B]와 같다고 하였다. [B]는 원그래프로 되어 있어 각 평가 요소별 비중이 쉽게 인식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를 보면, 광고 수상 작품 수와 광고 분야로 진출한 선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은 광고 분야에 진출하는 데 광고제의 수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B]를 통해 평가에서 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은 통계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A]는 광고 수상 작품 수와 광고 분야로 진출한 선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동아리 부원들이 광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광고제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또한 [B]는 평가에서 각 요소의 비중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해당 평가 요소의 비율이 변해 가는 과정을 알 수 없다.

③ [A]는 광고 수상 작품 수와 광고 분야로 진출한 선배의 수

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광고제의 수상이 광고 분야의 진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B]를 통해 평가에서 소비자의 요구 반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평가에서 소비자의 요구 반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중요해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④ [B]는 평가에서 해당 요소의 비중을 보여 주는 것으로, 지원자가 작품을 출품할 때 해당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는 광고 수상 작품 수와 광고 분야로 진출한 선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각종 광고제의 활성화로 인해 광고 관련 분야에 진출이 용이하게 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

07 매체 자료의 수정 및 보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카페의 댓글에서는 효정이 ‘이것만으로는 우리 동아리를 다 알려 주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동아리 카페에 가면 동아리에 관한 정보가 많은데.’라고 하자, 정애가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의 카페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QR 코드를 만들어 넣을게.’라고 하고 있다. 즉 댓글에서는 동아리 카페로 접속하게 하여 동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④의 QR 코드는 동아리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댓글을 반영하여 수정했다고 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라는 이미지와, ‘<상상의 날개>에 지원하는 방법’이라는 소재목을 활용하여 동아리에 지원하는 방법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
- ② ‘지원서 내려받기’와 ‘지원서 제출하기’는 동아리 카페를 가지 않고도 클릭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든 기능으로, 지원서를 쉽게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③ 달력 이미지에 동아리 지원서 제출 시작 날짜와 마감 날짜를 각각 ‘<’와 ‘>’라는 이미지와 ‘○’를 활용하여 표시함으로써 동아리 지원서 제출 날짜를 눈에 띄게 하고 있다.
- ⑤ ‘#상상의_날개 #광고_동아리’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서의 검색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다.

08 매체 자료의 생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의 넷째 장면(S#4)에서

는 동아리 부원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 주고, 각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영상 제작 계획에서는 부원들이 필요에 따라 활동을 선택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동아리에 들어와서 광고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울 각 단계를 원의 형태로 구성하고 각 단계의 연결에 대해 내레이션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상 제작 계획이 영상 제작을 위한 메모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영상 제작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라고 알려진 1886년의 세창 양행의 광고를 보여 주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라는 것을 자막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라고 알려진 광고를 보여 주고, 이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겠다는 메모를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 ② 영상 제작 계획은 화면 여기저기에 여러 기업들이 하는 광고를 보여 주고, 내레이션으로 현대인들이 이런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광고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고, 이와 관련한 현대인의 삶을 제시하겠다는 메모를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 ③ 영상 제작 계획은 명암을 활용하여 좋은 광고와 나쁜 광고를 대비되게 보여 주고, 동아리는 이런 좋은 광고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라는 내용을 내레이션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좋은 광고와 나쁜 광고를 대비하여 보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동아리의 성격을 제시하겠다는 메모를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 ⑤ 영상 제작 계획은 동아리에서 광고를 배워 현재 광고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동아리 출신 선배의 인터뷰를 보여 주고, 동아리 지원을 권유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동아리 출신 선배의 인터뷰를 보여 주고, 동아리 지원을 권유하는 내용을 제시하겠다는 메모를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09 매체 자료의 특성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에서는 ‘현재’라는 탭을 통해 매체 자료를 접하는 시점의 실시간 날씨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 전체와 다른 날에 대한 날씨 정보는 주고 있지만 현재 상황, 즉 매

체 자료를 접하는 시점의 실시간 날씨 정보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가)에서는 '밤사이 비가 내렸던 제주와 남부 지방은 오전 10시 17분 12초가 막 지나가는 현재 비가 멈추었으며'라고 하여 현재 상황, 즉 매체 자료를 접하는 시점의 실시간 날씨 정보를 주고 있다. 따라서 (가)에 대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방송이 될 때만, (나)는 신문이 발행될 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웹 사이트는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다)는 '댓글'을 통해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와 (나)는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 ④ (가)는 라디오이므로 음성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다) 또한 '음성 지원'이라는 기능을 통해 음성 언어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문자와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⑤ (나)와 (다)는 날씨의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는 라디오이므로 오로지 음성 언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10 매체 자료에 내재된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우리 동네 날씨'에서는 '여기는 ☉☉동인데 아직 비가 내려요.', '□□도 비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동인데, 여기도 날씨가 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라고 하여 각 동네의 날씨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동네 날씨'를 통해 정보 수용자가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정보 수용자가 정보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간대별'의 탭을 클릭하면 '현재', '오늘 오전', '오늘 오후', '내일 오전' 등 필요로 하는 시간대의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② '날씨 홈'에는 '지역별 날씨', '기간별 날씨', '뉴스·기상 특보' 등의 항목이 있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③ '관심 지역 날씨 설정'의 탭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특정 지역의 날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④ '더 보기'를 클릭하면 그 항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11 매체 자료에 사용된 이미지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기상 위성 영상으로 대기의 기상 상태를 그대로 보여 준다. <보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기상 위성 영상은 대기에 관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서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 ㉠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을 해독하는 데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③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구름의 흐름에 관한 정보는 ㉡에서만 제공이 가능하다.
- ④ ㉠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상 이변 등과 같은 특정 정보를 눈에 잘 띄게 전달하는 데는 ㉠과 같이 가공된 이미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⑤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은 국지적인 기상 정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넘어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의 기상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과의 완벽한 시너지
오개념 위험이 높은 변형 문제는 NO!
보장된 고퀄리티 기출문제 OK!

실전 학습

2 회

본문 232~240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⑤

01 음운의 체계와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땀받이 → [땀바지]’에서는 ‘ㄷ’이 ‘ㅈ’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ㅇ’이 탈락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체만 일어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국보 → [국뽕]’에서는 ‘ㅂ’이 ‘ㅃ’으로 교체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는 5개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변동이 없다.
 ② ‘축하 → [추카]’에서는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전체 음운의 개수는 5개이지만,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는 4개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는 1개 줄어들게 된다.
 ③ ‘영업용 → [영업똥]’에서는 ‘ㄴ’이 첨가되고 ‘ㅂ’이 ‘ㅃ’으로 교체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전체 음운의 개수는 6개이지만,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는 7개이다.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는 1개 늘어나게 된다.
 ⑤ ‘웃매 → [온매]’에서는 ‘ㅅ’이 ‘ㄷ’으로 교체된 후 그 ‘ㄷ’이 다시 ‘ㄴ’으로 교체된다.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 전체 음운의 개수는 4개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변동이 없다.

02 음운의 체계와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달나라’가 [달라라]로, ‘쌀눈’이 [쌀룬]으로 발음되는 것은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난 결과이다. 이처럼 ‘ㄴ’에서 ‘ㄹ’로의 교체가 일어나므로 입력형과 출력형은 ‘ㄴ → ㄹ’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이 음운 변동의 적용 환경은 ‘ㄹ’ 뒤에 ‘ㄴ’이 올 때이므로, ‘ㄹ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음운 변동은 ‘ㄴ → ㄹ/ㄹㄴ’로 형식화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ㄹ’이 ‘ㄴ’과 ‘ㄹ’ 사이에서 첨가되는 현상을 형식화한 것이다.
 ② ‘ㄴ’이 ‘ㄴ’과 ‘ㄹ’ 사이에서 ‘ㄹ’로 교체되는 현상을 형식화한 것이다.
 ④ ‘ㄴ’이 ‘ㄹ’ 앞에서 ‘ㄹ’로 교체되는 현상을 형식화한 것이다.
 ⑤ ‘ㄴ’이 ‘ㄹ’ 뒤에 탈락되는 현상을 형식화한 것이다.

03 국어사전 정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어[이어], 이으니[이으니]’는 어간에 연결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그리고 ‘있는[인:는]’은 어간에 전성 어미가 결합된 경우이다. 주어진 국어사전 정보 내에서 장음은 어간에 종결 어미가 결합한 ‘있다[인:따](기본형), [활용] 중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있는[인:는]’에만 있다. 그러므로 용언의 어간에 연결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간을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있다¹’의 ‘[…을 (...과)], […을 …에]’, ‘있다²’의 ‘[…을]’을 볼 때, 두 경우 모두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즉 타동사에 해당한다.
 ② ‘있다³’은 ‘[…에]’를 볼 때,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을 알 수 있다.
 ③ ‘있다’에는 ‘있다¹’, ‘있다²’, ‘있다³’과 같이 하나의 표제어 안에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있다’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다의어임을 알 수 있다.
 ④ ‘있다’는 ‘이어’, ‘이으니’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으니’ 앞에서 어간의 끝소리 ‘ㅅ’이 탈락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있다’는 어간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ㅅ 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04 사동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니다’는 ‘어떤 볼일이 있어 일정한 곳을 정하여 놓고 드나들다.’라는 뜻의 동사로, 어간이 ‘ㅣ’로 끝나며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땀다’는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김새나 성질을 지니다.’라는 뜻의 동사로,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이며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비다’는 어간이 ‘이’로 끝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자리)를 비우다’와 같이 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친구가 선생님이 되다’에서 ‘되다’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사동 접미사가 결합되지 못하지만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05 외래어 표기법의 주요 내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b.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북’은 ‘북’, ‘슈퍼마켓’은 ‘슈퍼마켓’, ‘백업’은 ‘백업’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이는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규정에 따라 받침에 ‘ㄱ’, ‘ㄷ’, ‘ㅍ’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a.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는 규정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원어의 발음에 상관없이 현행 한글에 없는 글자를 만들어서 표기하지는 않는다는 규정이다.
c. 파일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외래어의 파일음을 적을 때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만을 사용하고, 된소리는 쓰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06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시은’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대화방 화면 캡처해서 보낼게.’라고 한 후 화면을 캡처한 파일을 대화방에 올렸다. 그리고 ‘태현’은 두 번째 글에서 ‘대화 내용 확인해 볼 테니까 하던 얘기 계속하고 있어.’라고 하였다. 따라서 ‘태현’이 대화방에 입장하기 이전의 대화 내용을 추측하며 의견을 밝힌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동우’는 ‘ㄷ’과 ‘ㅇ’, ‘ㅎ’처럼 한글의 모음자와 자음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현주’는 ‘한 슬라이드에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전달력이 약해진다면서 ‘글자 수를 줄이고, 주요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③ ‘현주’는 ‘발표 자료를 우리 모두 인터넷 공유 폴더에 올려서 함께 다듬’자고 제안하고 있다.
⑤ ‘시은’은 인물을 소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있는 곳의 웹 사이트 주소를 올려서 다른 참여자들이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7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동우’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태현’의 의견을 수용하여 슬라이드마다 출처 표시를 넣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기>의 ‘슬라이드 3’에는 자료의 출처 표시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슬라이드 1’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할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인물을 감추고 있지만, <보기>의 ‘슬라이드 1’에서는 ㉠을 반영하여 소개하려는 인물의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있다.
② (가)의 ‘슬라이드 1’에서는 인물의 훌륭한 점을 강조하는 문구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기>의 ‘슬라이드 1’에서는 ㉡을 반영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라는 부제를 붙여 인물의 훌륭한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③ (가)의 ‘슬라이드 3’에서는 인물의 생애를 줄글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만, <보기>의 ‘슬라이드 3’에서는 ㉢을 반영하여 시간 순서대로 짧막하게 간추려 제시하고 있다.
④ (가)의 ‘슬라이드 3’에서는 문자와 이미지만으로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만, <보기>의 ‘슬라이드 3’에서는 ㉣을 반영하여 동영상 자료를 추가하였다.

08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안’은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부정 부사이다. ‘다는 안 들어왔네.’는 <보기>의 내용을 충족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없-’은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부정 부사가 아니다.
③ ‘-지 않-’은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지만 부정 부사가 아니다.
④ ‘-지 못-’은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도 아니고, 부정 부사도 아니다.
⑤ ‘아니-’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9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신문 매체를 통해 정보가 소통되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도 인터넷 블로그를 매체로 하여 정보가 소통되므로 불특정 다수를 수용자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가 (나)에 비해 시의성 있는 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정보의 수용자가 정보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올리고 생산자와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는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수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된다.
- ② (가)는 신문 광고의 특성상 지면의 제약이 있어서 다룰 수 있는 정보량에도 한계가 있다. (나)는 정보량 면에서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④ (가)에서는 QR 코드를 삽입하여 동영상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나)에서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추가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자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매체에서 문자, 이미지, 소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것을 복합 양식성이라고 한다.

10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우리 교육을 속 시원하게 진단’, ‘우리나라 교육의 양면을 균형 있는 관점으로 조망’과 같은 문구는 독자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에서 이러한 이득을 수량으로 표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광고의 표제에 ‘모든 국민’, ‘최고의’ 등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 ② ‘2021 전국 서점 판매(인문) 1위’, ‘17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 등 판매 실적을 강조하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광고하는 책의 상업성을 높이려고 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1위’, ‘73.4%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 ⑤ 광고의 하단에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 교육학과 □□ 교수’의 추천사를 인용하여 독자가 책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11 뉴 미디어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서는 수용자인 ‘늘봄’과 생산자인 ‘책동이’ 사이에 소통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은 ‘댓글’에서 ‘바람돌이’와 ‘책동이’가 주고받은 내용과 작성 시간을 고려할 때, 게시글을 처음 작성한 시간이 아니라 수정한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㉔에 있는 숫자는 생산자가 작성한 글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게시글에서 소개한 책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도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㉔에 나열된 글의 제목을 고려할 때, 게시글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㉔은 생산자가 최근에 작성한 글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 ④ ㉔은 게시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게시글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여 수용자가 생산자의 글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01 (1) 완강기 사용법 (2) 복합 양식성 02 ㉠, ㉡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① 음운 01 <table border="1" data-bbox="297 450 603 597"> <thead> <tr> <th>최소 대립쌍</th> <th>추출된 음운</th> </tr> </thead> <tbody> <tr> <td>거르다-고르다</td> <td>ㄱ, ㅋ</td> </tr> <tr> <td>구슬-구실</td> <td>ㅡ, ㅣ</td> </tr> <tr> <td>나리-누리</td> <td>ㅏ, ㅑ</td> </tr> <tr> <td>매다-메다</td> <td>ㅘ, ㅙ</td> </tr> </tbody> </table> 02 (1) 입술을 평평하게 한다 (2) 혀가 뒤쪽에 있다 (3) 혀의 높이가 낮다 03 <table border="1" data-bbox="297 603 917 715"> <thead> <tr> <th>탐구 대상</th> <th>음운 개수 변화</th> <th>음절 유형 변화</th> </tr> </thead> <tbody> <tr> <td>부역문[부영문]</td> <td>변화 없음.</td> <td>변화 없음.</td> </tr> <tr> <td>착하니[차카니]</td> <td>1개 줄어듦.</td> <td>'착하니'의 '착'이 ㉠에서 ㉡로 변함.</td> </tr> <tr> <td>집일[집닐]</td> <td>1개 늘어남.</td> <td>'집일'의 '일'이 ㉢에서 ㉣로 변함.</td> </tr> </tbody> </table>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② 단어 01 <table border="1" data-bbox="297 754 752 921"> <thead> <tr> <th>단어</th> <th>형태</th> <th>기능</th> <th>의미</th> </tr> </thead> <tbody> <tr> <td>주말</td> <td>불변어</td> <td>체언</td> <td>명사</td> </tr> <tr> <td>셋</td> <td>불변어</td> <td>체언</td> <td>수사</td> </tr> <tr> <td>에서</td> <td>불변어</td> <td>관계언</td> <td>조사</td> </tr> <tr> <td>우리</td> <td>불변어</td> <td>체언</td> <td>대명사</td> </tr> <tr> <td>새</td> <td>불변어</td> <td>수식언</td> <td>관형사</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data-bbox="760 754 1223 891"> <thead> <tr> <th>단어</th> <th>형태</th> <th>기능</th> <th>의미</th> </tr> </thead> <tbody> <tr> <td>맑은</td> <td>가변어</td> <td>용언</td> <td>형용사</td> </tr> <tr> <td>한결</td> <td>불변어</td> <td>수식언</td> <td>부사</td> </tr> <tr> <td>아</td> <td>불변어</td> <td>독립언</td> <td>감탄사</td> </tr> <tr> <td>떠들다</td> <td>가변어</td> <td>용언</td> <td>동사</td> </tr> </tbody> </table> 02 <table border="1" data-bbox="297 931 878 1048"> <thead> <tr> <th>해당 단어</th> <th>결합 형태</th> </tr> </thead> <tbody> <tr> <td>㉠ '달려왔다' → 달려오다</td> <td>어근 '달라-'와 어근 '오-'가 결합</td> </tr> <tr> <td>㉡ '새파란' → 새파랗다</td> <td>어근 '파랗-'에 접두사 '새-'가 결합</td> </tr> <tr> <td>㉢ '자랑스럽게' → 자랑스럽다</td> <td>어근 '자랑'에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td> </tr> </tbody> </table> 03 <table border="1" data-bbox="940 931 1246 1048"> <thead> <tr> <th>단어</th> <th>바른 표기</th> </tr> </thead> <tbody> <tr> <td>집현전</td> <td>Jiphyeonjeon</td> </tr> <tr> <td>월요일</td> <td>woryoil</td> </tr> <tr> <td>합덕</td> <td>Hapdeok</td> </tr> </tbody> </table>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③ 문장 01 <table border="1" data-bbox="297 1087 1136 1205"> <thead> <tr> <th>언어 있는 절의 종류</th> <th>절이 실현된 표지</th> </tr> </thead> <tbody> <tr> <td>(가) 관형사절 '여학을 좋아하는' / 명사절 '어디로든 떠나기'</td> <td>관형사형 어미 '-는' / 명사형 어미 '-기'</td> </tr> <tr> <td>(나) 관형사절 '어제 내가 만난' / 서술절 '키가 정말 컸다'</td> <td>관형사형 어미 '-ㄴ' / 표지 없음.</td> </tr> <tr> <td>(다) 관형사절 '잔뜩 겁을 먹은' / 부사절 '손에 땀이 나도록'</td> <td>관형사형 어미 '-은' / 부사형 어미 '-도록'</td> </tr> </tbody> </table> 02 (1) 관형어 (2) 부사어 (3) 목적어 03 <table border="1" data-bbox="297 1234 1136 1460"> <thead> <tr> <th></th> <th>실현된 부분</th> <th>문법 요소의 실현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높임 표현</td> <td>버려집니다</td> <td>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버니다' 사용</td> </tr> <tr> <td>주시기</td> <td>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사-' 결합</td> </tr> <tr> <td>바랍니다</td> <td>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버니다' 사용</td> </tr> <tr> <td rowspan="2">피동 표현</td> <td>버려집니다</td> <td>'-어지다'에 의한 피동</td> </tr> <tr> <td>남비되지</td> <td>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되다'가 명사에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 사용</td> </tr> <tr> <td>사동 표현</td> <td>남긴</td> <td>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사동사 사용</td> </tr> <tr> <td>부정 표현</td> <td>남비되지 않도록</td> <td>'-지 않다' 사용</td> </tr> </tbody> </table>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④ 담화/국어사 01 ㉠: 박물관 ㉡, ㉢: 해수욕장 ㉣: 놀이동산 02 ㉠: 반치음(ㅅ) 소실 ㉡: 둘째 음절 '·'가 '-'로 변화 ㉢: 첫째 음절 '·'가 'ㅏ'로 변화 03 ㉠: -뇨 ㉡: -니다	최소 대립쌍	추출된 음운	거르다-고르다	ㄱ, ㅋ	구슬-구실	ㅡ, ㅣ	나리-누리	ㅏ, ㅑ	매다-메다	ㅘ, ㅙ	탐구 대상	음운 개수 변화	음절 유형 변화	부역문[부영문]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착하니[차카니]	1개 줄어듦.	'착하니'의 '착'이 ㉠에서 ㉡로 변함.	집일[집닐]	1개 늘어남.	'집일'의 '일'이 ㉢에서 ㉣로 변함.	단어	형태	기능	의미	주말	불변어	체언	명사	셋	불변어	체언	수사	에서	불변어	관계언	조사	우리	불변어	체언	대명사	새	불변어	수식언	관형사	단어	형태	기능	의미	맑은	가변어	용언	형용사	한결	불변어	수식언	부사	아	불변어	독립언	감탄사	떠들다	가변어	용언	동사	해당 단어	결합 형태	㉠ '달려왔다' → 달려오다	어근 '달라-'와 어근 '오-'가 결합	㉡ '새파란' → 새파랗다	어근 '파랗-'에 접두사 '새-'가 결합	㉢ '자랑스럽게' → 자랑스럽다	어근 '자랑'에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	단어	바른 표기	집현전	Jiphyeonjeon	월요일	woryoil	합덕	Hapdeok	언어 있는 절의 종류	절이 실현된 표지	(가) 관형사절 '여학을 좋아하는' / 명사절 '어디로든 떠나기'	관형사형 어미 '-는' / 명사형 어미 '-기'	(나) 관형사절 '어제 내가 만난' / 서술절 '키가 정말 컸다'	관형사형 어미 '-ㄴ' / 표지 없음.	(다) 관형사절 '잔뜩 겁을 먹은' / 부사절 '손에 땀이 나도록'	관형사형 어미 '-은' / 부사형 어미 '-도록'		실현된 부분	문법 요소의 실현 방법	높임 표현	버려집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버니다' 사용	주시기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사-' 결합	바랍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버니다' 사용	피동 표현	버려집니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	남비되지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되다'가 명사에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 사용	사동 표현	남긴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사동사 사용	부정 표현	남비되지 않도록	'-지 않다' 사용
최소 대립쌍	추출된 음운																																																																																																															
거르다-고르다	ㄱ, ㅋ																																																																																																															
구슬-구실	ㅡ, ㅣ																																																																																																															
나리-누리	ㅏ, ㅑ																																																																																																															
매다-메다	ㅘ, ㅙ																																																																																																															
탐구 대상	음운 개수 변화	음절 유형 변화																																																																																																														
부역문[부영문]	변화 없음.	변화 없음.																																																																																																														
착하니[차카니]	1개 줄어듦.	'착하니'의 '착'이 ㉠에서 ㉡로 변함.																																																																																																														
집일[집닐]	1개 늘어남.	'집일'의 '일'이 ㉢에서 ㉣로 변함.																																																																																																														
단어	형태	기능	의미																																																																																																													
주말	불변어	체언	명사																																																																																																													
셋	불변어	체언	수사																																																																																																													
에서	불변어	관계언	조사																																																																																																													
우리	불변어	체언	대명사																																																																																																													
새	불변어	수식언	관형사																																																																																																													
단어	형태	기능	의미																																																																																																													
맑은	가변어	용언	형용사																																																																																																													
한결	불변어	수식언	부사																																																																																																													
아	불변어	독립언	감탄사																																																																																																													
떠들다	가변어	용언	동사																																																																																																													
해당 단어	결합 형태																																																																																																															
㉠ '달려왔다' → 달려오다	어근 '달라-'와 어근 '오-'가 결합																																																																																																															
㉡ '새파란' → 새파랗다	어근 '파랗-'에 접두사 '새-'가 결합																																																																																																															
㉢ '자랑스럽게' → 자랑스럽다	어근 '자랑'에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																																																																																																															
단어	바른 표기																																																																																																															
집현전	Jiphyeonjeon																																																																																																															
월요일	woryoil																																																																																																															
합덕	Hapdeok																																																																																																															
언어 있는 절의 종류	절이 실현된 표지																																																																																																															
(가) 관형사절 '여학을 좋아하는' / 명사절 '어디로든 떠나기'	관형사형 어미 '-는' / 명사형 어미 '-기'																																																																																																															
(나) 관형사절 '어제 내가 만난' / 서술절 '키가 정말 컸다'	관형사형 어미 '-ㄴ' / 표지 없음.																																																																																																															
(다) 관형사절 '잔뜩 겁을 먹은' / 부사절 '손에 땀이 나도록'	관형사형 어미 '-은' / 부사형 어미 '-도록'																																																																																																															
	실현된 부분	문법 요소의 실현 방법																																																																																																														
높임 표현	버려집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버니다' 사용																																																																																																														
	주시기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사-' 결합																																																																																																														
	바랍니다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버니다' 사용																																																																																																														
피동 표현	버려집니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																																																																																																														
	남비되지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되다'가 명사에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 사용																																																																																																														
사동 표현	남긴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사동사 사용																																																																																																														
부정 표현	남비되지 않도록	'-지 않다' 사용																																																																																																														
3강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01 ㉠: 신뢰성 ㉡: 현장감 02 ㉢: 심미적 03 ㉣: 존중 ㉤: 배려 04 간접 광고에는 기업과 프로그램 제작사의 지나친 상업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01 ㉠, ㉡, ㉣, ㉤ 02 (1) 동영상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에 비해 용량이 작아 SNS로 공유하기에도 좋기 때문이다. (2) ㄷ																																																																																																															

» 2부 적용 학습

언어	01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2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② 06 ②
	03	01 ① 02 ① 03 ② 04 ⑤ 05 ④ 06 ②
	04	01 ⑤ 02 ③ 03 ⑤ 04 ① 05 ① 06 ②
	05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②
	06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7	01 ③ 02 ⑤ 03 ① 04 ③ 05 ④ 06 ②
	08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④ 06 ①
	09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10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6 ②
	11	01 ④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⑤
	12	01 ③ 02 ④ 03 ⑤ 04 ① 05 ①
	13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5 ②
	14	01 ④ 02 ① 03 ③ 04 ④ 05 ④

매체	01	01 ⑤ 02 ③ 03 ④ 04 ③
	02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⑤
	03	01 ③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4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5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7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8	01 ⑤ 02 ④ 03 ⑤ 04 ③ 05 ②
	09	01 ② 02 ③ 03 ③ 04 ① 05 ③
	10	01 ④ 02 ③ 03 ② 04 ② 05 ③
	11	01 ② 02 ① 03 ③ 04 ⑤ 05 ①
	12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④
	13	01 ② 02 ② 03 ② 04 ③ 05 ①
	14	01 ⑤ 02 ② 03 ③ 04 ① 05 ③

통합	01	01 ③ 02 ② 03 ⑤
	02	01 ② 02 ④ 03 ③
	03	01 ④ 02 ④ 03 ④
	04	01 ④ 02 ④ 03 ③
	05	01 ① 02 ④ 03 ⑤
	06	01 ② 02 ② 03 ①

»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①
2회	01 ④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④ 07 ⑤ 08 ② 09 ③ 10 ③ 11 ⑤

